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79호 【루계 제25688호】 주체106(2017)년 6월 28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27일 인민무력상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메가 쿠바공화국대사관 무관이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프놈펜

캄보쟈인민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캄보쟈인민당창건 66돐에 즈음하여 귀 당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캄보쟈인민당이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번영하는 캄보쟈를 건설하기 위한 귀 당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6(2017)년 6월 27일 평양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걸출한 정치가

외국의 벗들이 격찬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끄시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 서기장 메구 싼또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를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선대수령들께서 지니시였던 사상리론적예지, 인민적령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그이의 정치는 결심이 확고하고 신념이 투철한 정치, 신보한 정치이다.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전체 조선민족이 통일된 강토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예속을 반대하는 진보적인민들은 그이의 탁월한 령도가 있는 한 세계자주화위업은 빛나게 실현될것이라고 굳게 믿고있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 자베드 안싸리는 최근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미증유의 기적과 변혁들은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은각하를 모시여 사회주의조선은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못하는 불패의 강국,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백두산대국으로 만방에 위용떨치고있다.

그이께서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시며 세계를 놀래우는 위대한 전변을 안아오고 계신다.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는 창조와 진실의 영재이시다.

또 한분의 백두산위인이신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것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도 크나큰 영광, 더없는 행복으로 된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 요제프 쎄르비스따는 자주정치, 인민사랑의 정치를 펴나가시는 김정은동지는 절세의 위인,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시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조선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할것이다고 격찬하였다.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떤센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는 현시대의 그 어느 군사가도 따를수 없는 뛰여난 군사적자질과 품격을 지니신 천하제일명장이시다.

그이께서는 총대를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계신다.

위대한 명장을 모신 조선인민은 온갖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적대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백두의 선군명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조선중앙통신】

드세찬 공격전으로 가물과의 전투에 계속 박차를 가하자

만사를 제치고 떨쳐나 물주기성과 계속 확대

성, 중앙기관들에서

황해남도, 황해북도의 협동벌이 전례없는 열기로 끓어번지고있다. 당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농촌으로 달려나간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사회주의전야에서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는 전투적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에서는 현재 매일 수천정보의 면적에 물을 주고있다. 특히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수천명의 로력과 수십대의 물차, 각각 수백대의 양수기와 분무기를 보장함으로써 당의 높은 뜻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려는 굴함없는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며 늘 일감을 찾아쥐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야 합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오늘의 가물과의 전투는 당중앙옹위전이고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매일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농업성의 일군들이 나라의 농사를 당과 조국,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당의 뜻대로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면밀히 짜고들고있다. 수십명의 일군들을 전투장들에 파견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제때에 장악대책하며 농업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가물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국가자원개발성에서 전격전의 폭풍이 일고있다. 성일군들은 많은 량의 연유와 양수기, 분무기를 마련해가지고 협동벌에 달려나가 가물피해막이전투를 혁명적으로 하고있다. 일군들은 해당 단위와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가물이 제일 많이 든 포전부터 물을 주고있다. 이들은 불타는 심장들이 하늘도 못주는 단비를 불러 포전을 적신다고 하면서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바치고있다.

식료일용공업성의 일군들속에서도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열의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성에서는 수십명의 로력을 농촌들에 급파하고 물차, 뽐프, 분무기들을 보내줌으로써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매일, 매 시각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성일군들은 사생결단의 각오와 실천이 없이는 지켜설수 없는것이 우리의 푸른 들, 우리의 사회주의대지라는것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금속공업성, 철도성의 일군들은 많은 양수설비들을 가지고 연안군에 달려나가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결사용위,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이들은 우리의 일심단결이 얼마나 위력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의 총동원이 어떤것인가를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서 다시금 만방에 과시하려는 불타는 열의밑에 애국충정의 땀을 바쳐가고있다.

강령군에 급파된 중앙은행의 일군들도 한방울한방울의 물을 원쑤들에게 들씌우는 불소나기로 여기고 물주기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이들은 하늘을 탓하면서 우물쭈물 뒤자리나 차지해가지고서는 오늘의 거창한 투쟁대렬에 맺맺이 들어설수 없다고 하면서 당의 의도를 불타는 충정과 실천으로 받들어가고있다.

국가계획위원회의 일군들은 가물피해막이전투에 적극 떨쳐나섰데 대한 당의 호소에 접한 즉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여러대의 양수기와 많은 연유를 싣고 강령군을 향해 긴급출동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수십명의 로력으로 물주기를 전투적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전력공업성의 일군들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섰다는 자각과 높은 책임감을 안고 현지에 도착한 첫날부터 여러대의 양수기들로 드넓은 포전들을 힘차게 누비며 생명수를 부어주고있다.

배천군에 달려나간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죽어 묻힐 땅은 있어도 살아 물러설 땅은 없다고 웨치며 이 땅 한치한치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전화의 영웅전사들의 그 넋과 숨결이 자기들의 심장에서 고동쳐야 한다고 하면서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기계공업성의 일군들은 지원자가 아니라 주타격전방을 지켜선 전투원이 된 심정으로 물주기를 진행하고있다.

건설건재공업성의 일군들은 전화의 나날 직사포를 고지에 끌어올리던 인민군용사들처럼 물원천지가까이로 양수기를 옮기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줄기찬 련속공격전을 벌리고있다.

옹진군에서 가물피해막이전투를 혁명적으로 벌리고있는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투쟁기세도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일군들은 천만의 심장이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고동쳤던 그때처럼 오늘의 총동원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기어이 떨칠 기세드높이 만복의 터전인 어머니대지에 생명수를 주고있다.

체신성, 채취공업성 일군들은 한몸이 그대로 양수기가 되고 심장의 피를 깡그리 쏟아부어서라도 사회주의전야를 더 푸르게 가꾸는데 적극 이바지하려는 결사의 각오로 하루하루를 혁신으로 빛내이고있다.

대외경제성을 비롯하여 이 군에 달려나온 여러 성일군들도 자연의 횡포와 인간의 의지와의 대결전이라고 할수 있는 오늘의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기어이 승리를 이룩할 신심드높이 양수기와 분무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있다.

재정성, 로동성을 비롯한 수많은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사회주의의 위력,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가물피해를 막고 당면한 영농공정을 힘있게 추진시켜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높이 울려퍼지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불타는 충정과 실천으로 받들어가고있다.

당에서 번개를 치면 결사관철의 우뢰로 화답하는 지원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가물피해막이전투장들에서는 반드시 승리의 개가가 높이 울려퍼지고 최후주의전야는 풍요한 가을을 약속하며 더욱 푸르러 설테일것이다.

일심단결은 하늘도 이긴다

◇ 시간이 흐를수록 가물과의 대격전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당의 전투명령을 높이 받들고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협동벌을 타고앉은 인민군군인들과 그에 뒤질세라 일제히 떨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의 결사적인 투쟁에 의하여 매일 전국적으로 방대한 면적의 논과 밭들이 꼭 적셔지고있다.

그렇다.

지금 사회주의전야에 흐르는 생명수는 결코 자연의 물이기 전에 일심단결의 커세찬 대하이다. 강과 호수가 마를지언정 우리 천만군민의 애국의 더운 피, 헌신의 땀방울은 절대로 마를수 없다. 바로 이것이 밑거름이 되여 이 땅의 곡식들이 더욱 푸르싱싱해지는것 아니겠는가.

◇ 전당, 전군, 전민의 단결된 힘은 하늘도 이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심단결은 주체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필승의 무기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나 자연재해는 다 있다. 하지만 어떤 참혹한 대재앙도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앞에서 떡을 추지 못하고 복으로 전환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경이적인 현실이다.

새 세기 첫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수십년래에 처음 보는 혹심한 왕가물이 지속되였다. 강하천들은 물론 우물까지 말라버렸으나 전군, 전민이 가물피해를 가시기 위한 총결사전을 벌린 결과 그해 알곡생산목표수행을 위한 승리의 돌파구가 열릴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불과 두달 남짓한 사이에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이룩한 대승리와 9개월이라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려명신화를 창조한 기적같은 건설속도도 우리는 전체 군대와 인민의 단결력으로 안아오지 않았던가.

일심단결이야말로 주체조선의 최강의 무기이며 불가항력적인 힘이다. 이 위대한 단결이 있어 우리 당의 결심이 언제나 눈부신 현실로 전환되고 우리 조국의 강용한 기상이 높이 떨쳐지고있는것이다.

◇ 당면한 가물피해막이전투에 숭고한 공민적자각을 안고 떨쳐나 당이 결심하면 반드시 해내고야마는 일심단결의 대풍모를 남김없이 과시하려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황해북도에서는 최근 며칠동안에만도 연 수십만명에 달하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 가두녀성들까지 가물이 심한 여러 지역들에 달려나가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도안의 모든 군들에서 관수설비, 운반수단들을 총동원, 총집중하고 우물과 굴포, 졸짱, 물주머니, 저류지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날마다 많은 포전들에 물을 주는 혁신적성과가 계속 이룩되고있다.

당중앙의 사상과 뜻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이런 투쟁기풍이면 강줄기도 돌릴수 있고 협동벌 그 어디나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게 할수 있다. 우리는 당의 호소에 화답하여 첫 전투에서부터 사회주의조선의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떨친 그 기세로 가물과의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성, 중앙기관과 각 도, 시, 군, 모든 공장, 기업소, 단체들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가물과의 투쟁에서 승전보성을 높이 울려나가야 한다.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평안북도의 시, 군들에서

온 나라가 떨쳐나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논과 밭들에 관수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농작물비배관리를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림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시, 군당조직들에서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도급, 시급,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녀성들이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포전들에 달려나가 물주기를 진행하면서 헌신의 구슬땀을 바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모든 시, 군들에서 양수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짜고들고 동력보장대책을 세우면서 가물을 심하게 받고있는 논과 밭에 물을 충분히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협동벌들에 집중시키고 힘있는 로전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하고있다. 시, 군당조직들에서는 직외강연강사들을 협동농장들에 파견하여 집중강연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리게 하고있다.

박천군의 책임일군들은 군급기관 일군들과 함께 가물피해를 많이 받고있는 협동농장들에 나가 물주기를 진행하면서 대중을 가물과의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급기관, 공장, 기업소, 군소재지에서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녀성들은 물전기재와 달구지들을 동원하여 논과 밭에 물을 주었다.

태천군의 책임일군들은 가물과의 투쟁을 벌리기 위한 협의회를 진행하고 협동농장들에 양수동력설비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웠으며 중요물길에 배치되여있는 양수장들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논밭에 물을 중단없이 보내주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군에서는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어느 한 협동농장의 천수답에 보막이를 하여 물을 보장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보막이와 굴포가시기를 진행하였다.

곽산군의 책임일군들은 가물피해를 많이 받고있는 농장들에 많은 로력을 파견하여 논밭에 물주기를 진행하였다.

정주시에서는 매일 많은 인원과 물전기재를 동원하여 논과 밭에 대한 물주기를 진행하고있다. 시에서는 양수기, 원동기 등 양수설비들을 동원하여 가물을 타고있는 논과 밭들에 대한 관수보장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도안의 시, 군들에서는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농작물비배관리를 깐지게 해나가고있다.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알곡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불타는 열의밑에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농장원들의 애국적헌신성에 떠받들려 협동벌들은 가물피해막이전투로 무글무글 끓어번지고 날이 갈수록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안주시에서— 물원천을 적극 리용하여 가물피해막이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력한 군민협동작전으로

함경남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함경남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긴급협의회를 열고 도안의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가물피해를 받는 논밭들을 전반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양수설비들을 만가동시키는데 필요한 연유보장사업을 깐지게 하였다.

각 시, 군당책임일군들은 가물피해를 철저히 막는것이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매우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일군들과 대중을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함흥시 사포구역과 동흥산구역에서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사포구역 초운협동농장에서는 유압식굴착기를 비롯한 기계화수단들을 동원하여 물길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꼈다. 농장에서는 수백m구간에 대한 하천바닥파기를 진행하고 많은 량의 물을 확보하여 포전들에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동흥산구역 송흥협동농장에서는 군민협동작전으로 성천강 취수구로부터 포전까지 근 4km에 대한 물길가시기를 진행하여 20여정보의 강냉이밭과 남새밭에 생명수가 흘러들게 하였다.

고원군에서는 우물, 졸짱, 굴포들을 보수하여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양수기들을 설치하여 많은 논에 물을 보장하였다.

영광군에서는 군급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녀성들이 떨쳐나 한때기의 논이나 밭이라도 가물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물주기를 깐지게 하고있다. 군의 일군들은 마른논면적을 료해하고 수십m의 물길공사를 진행하여 모자라는 물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었다.

락원군에서는 군민협동작전으로 많은 면적의 논밭에 물주기를 진행하였다.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나서니 농장벌들은 무글무글 끓어번지고 물주기심적은 부쩍 뛰여올랐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인민군군인들과 도안의 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충정과 결사관철의 정신력에 의해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는 생명수가 흘러들어 가물피해막이전투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가물이 지속되는 경우를 예견하여 굴포와 졸짱, 우물을 더 늘이며 양수설비들을 만가동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대중을 계속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대담한 공격정신으로 서울해방작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승리의 력사에는 미제가 전쟁을 도발한 후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가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한 혁혁한 전과도 아로새겨져 있다.

이 력사의 승리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무비의 담력, 뛰어난 령군술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안아오실수 있은 기적중의 기적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즉시적이며 결정적인 반공격전을 빨찌산 대한 방침은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군사전략이였다.

전쟁개시 3일만에 이룩된 서울해방작전에서의 기적적인 승리가 그것을 잘 실증해준다.

서울해방작전은 비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공격실천의 전략적중심고리를 명확히 찾아쥐시고 전쟁초기에 조성되였던 불리한 형세를 짧은 시일안에 역전시킴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쥘수 있게 하신 력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투이기도 하였다.

전쟁에서의 전략적중심고리는 오직 혹독한 군사적압록과 비범한 통찰력, 담대한 의지와 능숙한 군사적조직동원력을 지닌 뛰여난 령장만이 옳게 설정하고 작전적의도를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초기에 벌써 전선의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판계, 앞으로의 정세발전추이 등을 천리혜안의 예지로 분석판단한데 기초하여 적들을 전반적으로 급속히 격멸소탕할수 있는 요진통을 면바로 찾아쥐시고 강의한 의지와 결단력, 뛰여난 령군술로 작전을 주도세밀하게 조직지휘하는 탁월한 령장으로서의 군사적기질과 령군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시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찾으신 전략적중심고리가 바로 38˚ 선게선과 서울일대에 배치된 적기본집단을 일격에 소탕하는것이였다.

누구나 쉽게 결심할수 있는것이 결코 아니였다.

지난 전쟁들에서의 경험을 보면 적방어의 가장 약한 고리에 타격력량을 집중하여 승리를 이룩하는것이 어길수 없는 공식으로 되여있었다. 이것은 공격의 전과를 올릴수 있는 일반적원칙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공격의 전략적중심고리를 적기본집단이 집중전개되여있고 화력밀도도 가장 강한 38˚ 선지역과 서울일대의 적을 강력히 타격하는것으로 책정하시였다.

서울은 적들의 기본집단이 집중되여있는 가장 위험한 곳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적의 가장 강한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공격형식과 방법으로 그 고리를 풀면 얼마든지 적의 기본집단을 전면적으로 급속히 붕괴시키고 적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할수 있으며 여러 기동로들을 장악하고 전전선에 걸쳐 신속히 적의 전략적종심으로 성과를 확대해나갈수 있다고 보시였다.

이것은 적의 심장부에 력량을 집중하여 첫탕에 된매를 안김으로써 단한차례의 공격작전으로 적의 기본집단을 전면적붕괴에로 몰아넣을수 있게 하는 대담하고 통이 큰 군사전략이였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전략적중심고리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과 현명성이 있고 우리 수령님의 군사적지략의 위대성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설정된 전략적중심고리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체적인 작전안을 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서울지역에 집중된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주타격방향에서 행동하는 련합부대들이 맹렬한 반공격으로 적에게 강한 타격을 가하며 그 좌우측에서 행동하는 부대들이 주타격방향의 부대들과 긴밀한 협동밑에 한강이남에 신속히 진출하여 서울 서남쪽과 남쪽에 있는 적의 후로들을 모두 차단하고 배후를 타격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부대들사이의 협동작전을 잘 조직하고 주타격방향부대들의 행동에 모든것을 일치시키며 반공격속도를 높이되 적을 련속 타격하여 철저히 소멸하는 원칙을 견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해주신 전략적조치와 작전적방침에 따라 인민군부대들은 서울해방작전에 기본력량을 집중하면서 전전선에 걸쳐 전투성과를 급속히 확대해나갔다.

인민군부대들의 서울진입이 박두하게 되자 멸망의 공포에 질린 적들은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소동을 피웠고 서울시내는 삽시에 온통 수라장이 되였다. 당시 서울의 형편에 대하여 미국의 한 문필가는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표면상 서울의 6월 27일 밤은 죽은 거리였다. 새벽까지 〈한국군〉은 전면적으로 퇴각하고있었다. 화물자동차와 찔차에 탄 장교들과 사람들은 거리를 달리고있었고 그뒤에 반라체로 땀과 흙투성이가 되여 무엇인가 지껄여대며 무기를 내던지고 도보로 뛰여가는 군대들이 있었다.》

바빠맞은 적들은 《미군사고문단》의 지시에 따라 6월 28일 새벽 2시 15분에 《미군사고문단》과 괴뢰군참모총장이 지나가자바람으로 한강다리를 폭파해버리였다.

수백대의 차량과 무리를 지어 도망쳐가던 괴뢰군놈들이 한강에 그대로 수장되였다.

비명소리, 고함소리에 말그대로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펼쳐졌다.

새벽 5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서울시에 대한 총공격이 개시되였다.

완전히 절망상태에 빠진 적들이였지만 방어를 필사적으로 하였다.

인민군부대들이 시내에 돌입하자 적들은 도로굽이에 직사로를 배치하고 땅크들의 진격을 가로막아나섰으며 건물의 옥대기와 창문들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집중사격을 가하여왔다.

도로굽이와 건물들에 포화를 들씌운다면 놈들의 저항을 쉽게 분쇄할수 있었다. 그러나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보호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은 우리 인민군 군인들에게 있어서 한치도 어길수 없는 지상의 과업이였다.

인민군군인들은 능숙하고 령활한 전투활동으로 적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며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땅크부대의 선두에서 전투를 지휘하며 시내로 육박한 땅크부대장은 서대문형무소의 둔중한 철문을 짓뭉개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구출하였으며 땅크포탑에 올라 격동적인 연설을 하였다.

한편 서울방송국을 점령한 문화부려단장은 마이크를 틀어쥐고 미제와 리승만괴뢰역도의 소굴이였던 서울이 해방되였음을 온 세상에 력조높이 알리였다.

이무렵 적의 마지막숨통을 조이는 피어린 격전을 벌리며 괴뢰중앙청으로 돌입한 312호땅크의 포장은 보병들의 엄호밑에 비발치는 총탄속에서 기발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적지략에 의하여 서울해방작전은 우리 인민군대의 완전한 승리로 결속되였다.

적의 아성인 서울을 전쟁개시 3일만에 해방한 이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독창적인 전법이 안아온 현대전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서울시해방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6월 28일 전국 인민들과 인민군대와 서울시민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시여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전쟁의 최후승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시였다.

방송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축하문을 받아안은 서울시민들은 기리로 꽃밭 듯이 달려나와 《김일성장군 만세!》의 함성을 목청껏 터치였다.

공화국북반부를 순간에 삼키려던 미제침략자들의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괴뢰《정부》의 수도인 서울을 해방한 전대미문의 군사적기적은 전적으로 천리혜안의 군사적예지와 비범한 령군술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략적반공격의 중심고리를 면바로 찾으시고 전선작전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 결과에 이룩된 빛나는 승리였다.

승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참패는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다.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신 조선은 미제가 핵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며 력으로 위협공갈하던 시대를 영원히 종식시켰으며 우리의 혁억제력이 미국의 승통을 조이는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렸다.

미제가 력사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덤벼든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명을 높이 받들고 무적의 총대로 미제멸망사의 마지막페지를 써줄것이다.

본사기자 전 광 남

군인들에게 가르쳐주신 새로운 정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주체69(1980)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부대의 훈련장에서 진행하고있는 기동훈련을 보아주실 때의 일이다.

훈련장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가 기동성이 높고 화력이 강한 무장으로 장비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무적의 대오를 이룬 이 위용을 우리 인민이 보면 대단히 기뻐할것이라고, 적들이 보면 기겁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부대들의 기동력과 무장장비들의 전투적성능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료해하시면서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이께서는 지휘관들을 둘러보시면서 수많은 기동기재들과 성능높은 화력기재들이 동원되는 현대전쟁에서는 그 기동기재들과 화력기재들이 자기의 성능을 다 발휘할수 있도록 보장대책을 세우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대전쟁은 기계화전쟁이며 기름전쟁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밝히시였다.

기름이 없이는 기계화부대들이 한걸음도 움직일수 없으며 현대전쟁을 수행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세계적범위에서 전투차들의 도입범위와 량, 연유사정에 대하여 분석하신 장군님께서는 기름예비조성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부대지휘관의 마음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군인의 발은 날개와 같다고 말해왔다. 오늘날 현대화된 우리 인민군대에 있어서 기동기재와 전투차들은 실지 군대의 발이며 날개와도 같은것이다. 그러니 기름이 없이는 군대의 발이고 날개인 기동기재와 전투차들을 움직일수 없고 따라서 군대는 앉은뱅이가 되여 그자리에 주저앉게 된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현대전에서 중요한것은 탄약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이라고, 지난 시기에는 무장장비가 발전되지 못하여 총포탄을 한발씩 쏘았다면 지금은 무기들이 반자동화, 자동화되였기때문에 총포탄을 있는대로 쏘게 되여있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에서는 탄약을 누가 더 많이, 잘 보장하는가 하는데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현대전쟁은 알전쟁이라고도 말할수 있다고 힘있게 선언하신 위대한 선군령장.

현대전쟁은 기름전쟁이며 알전쟁!

현대전에 대한 새로운 정의였다.

수십년간 군사복무를 해온 부대지휘관도 전쟁에서 기계화수단이 차지하는 지위와 기름, 포탄, 탄알을 비롯한 전쟁물자들의 중요성에 대하여 모르는바는 아니였다.

하지만 현대전에 대한 개념을 주로 립체전, 전자전의 측면에서 많이 인식하고있던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정녕 그이의 가르치심은 현대전쟁의 특성을 새로운 측면에서 정식화한 정의였으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해명이였다.

본사기자

값높은 평가, 크나큰 믿음

우리 인민군대는 언제나 변함없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의 운명과 리익을 수호하며 자랑찬 길을 걸어가고있다.

《우리는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도 이 땅 그 어디서나 우리 군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흔히 이 말을 듣게 된다. 인민들의 성의가 와닿을 때마다 사양하며 터치는 군인들의 진정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인민군대가 인민의 참다운 군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로 끝없이 달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어느해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인민군부대 군인들의 미풍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으시였다. 농촌지원전투에 동원된 군인들속에서 발휘된 긍정자료였다.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어느 한 협동농장에 달려나간 군인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발휘하여 농사일을 성심성의껏 도와주었다. 그 나날 군인들은 일부 농장원들이 생활상에로를 걱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자기들의 지성이 담긴 물자를 안겨주며 군민이 힘을 합쳐 올해농사를 잘 짓자고 호소하였다. 이 소행을 목격한 이곳 농장에 달려나온 지원자들은 군인들에게 자기들이 마련한 많은 부식물을 원호하였다. 그러자 부대 군인들은 그것마저도 농장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이야기하였다. …

그후 어느날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 눈물이 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고 하시였다.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을 고무해주고 불러일으킨 군인들의 소행이 얼마나 대견하시였으면 우리 장군님이랑 뜨겁게 뇌이시랴.

지휘성원들은 눈굽이 젖어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것이 바로 인민들과 혈연적련계를 실현하는것이고 그런 군인들이 혁명적군인들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

인민의 아들딸들로 조직되고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군대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군인들의 소행을 귀중히 여기시며 혁명적군인들이라는 값높은 평가를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그이를 경건히 우러르며 지휘성원들은 가슴을 들먹이였다.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군민이 서로 돕고 이끌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사회의 불패성이 있고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다고, 그 부대일군들과 군인들 특히 부대안의 정치일군들을 높이 평가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농촌지원에 나간 군인들속에서 그런 소행이 발휘된것은 정치일군들이 일상적으로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한 결과인것만큼 응당 정치일군들을 높이 평가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농촌지원전투에 동원되여 농장원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농사일을 성의껏 도와준 소행은 이 부대군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민군부대들에서도 적극 발휘되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지원전투에서 혁명군대의 전투적위력을 뚜렷이 보여준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농사일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준 인민군군인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인민군대가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대진군의 돌격로를 열어제끼고 인민은 군대의 사상관점과 투쟁기풍, 생활방식을 따라배우며 창조와 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우리의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더욱 높이 떨쳐질수 있게 하는 근본비결이다.

본사기자 김 성 남

실력과 창발성

참다운 생활은 새롭고 진보적이며 아름다운것을 창조하는 혁명가들의 투쟁속에 있다.

인간중에서 아름다운 인간으로 찬양되는 혁명가는 항상 혁신적안목으로 창조적사색을 푸르익혀나간다. 도식이나 모방과 인연이 없고 주인다운 태도와 책임성의 발현인 창발성은 높은 실력으로만 담보된다. 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업을 대담하게 창조적으로 벌려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례외없이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실력제일주의, 이것은 시대의 요구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식이 빈곤한 머리에서 창발성이 나올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입니다.》

실력이 높고 자기 부문에 정통하여야 맡은 일을 잘해보겠다는 욕망도 생기고 자기 사업을 총화한데 기초하여 지금은 이러이러한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것 같다, 지금은 이러한것이 맞지 않으니 실정에 맞게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한다는 식으로 창발적인 의견을 제기할수 있으며 당의 방침을 옳게 관철할수 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지금 적지 않은 일군들은 머리에 든것이 별로 없다보니 틀에 박힌 방법으로 천편일률식으로 일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열성 하나만 가지고 일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아무리 당과 수령에게 충정다하려고 하여도 실력이 없으면 당의 의도대로 사업을 태탄하게 창조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창발성을 발휘하여 일하자면 무엇보다도 실력이 높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옳바른 주견이 있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옳바른 주견은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라 피타는 탐구와 노력으로 높은 실력을 소유하게 될 때 비로소 생기게 되며 그럴 때만이 모든 일을 창발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이것이 일군들의 창발성과 관련한 위대한 장군님의 의지였다.

일군들부터가 창발성을 지향하여야 아래사람들의 창발성을 적극 장려할수 있다.

당의 사상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며 집체적지혜에 의거하여 개인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것, 이것이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신 창발성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창발성을 억제하는 현상은 스칠수 없는 문제, 철저히 경계해야 할 문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실 때의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품을 모두 똑같은것을 쓰자고 하면 100개의 작품을 쓰는데 100명의 작가가 필요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강조하시였다.

한틀에 맞추어 만드는것은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며 그러한것을 만드는 사람은 작가가 아니라 상품제작공입니다. 똑같은 틀에 맞추어 똑같은것을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창작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한 형태에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을 그린 개성적특성이 산 작품입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창작가들의 창발성을 최대한 제발시킬 방도도 가르쳐주시였다.

작품창작에서는 한가지 처방만 가지고서는 성공할수 없다. 표현도 필수록 새롭게 써야 한다. 새로운 표현을 다 그어버리고나면 누가 쓴 작품이든지 같은 표현밖에 남을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틀에 박힌 작품이 되고만다. …

목표를 정해준 다음에는 곧추가든, 돌아가든 가는 방법을 한개 틀에 얽어맬 필요가 없다. 한길로만 가라고 하면 작품이 서로 류사해지고 맥이 빠지는것이다. 될수 있는대로 창작가들이 기발하게 착상하고 생신한 표현과 어휘를 골라쓰도록 장려하고 고무해주어야 한다. 형상수법이나 표현까지도 한가지 틀에 맞출것을 요구하면 작가들이 생기발랄한 표현이나 새로운 어휘를 찾아쓸 생각을 하지 않고 헐하게 해먹자고 할수 있다. 창작사업에서 도식주의는 금물이다. 아무리 잘된 작품이라고 해도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세울수는 없다. …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 언제나 비상한 독학으로 끊임없이 탐구하시고 창조적사색으로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정신과 창조성은 오늘도 우리모두에게 혁명가는 한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각성시켜주고있다.

창조로 빛나는 오늘의 시대는 어느 부문에서나 전략과 발전방향을 뚜렷이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전략과 발전방향은 높은 실력과 무단한 창발성의 결정체이다.

기성관념, 기존공식, 기존틀에 속박되여 시키는 일이나 하는 기계적인 인간은 일시 현상유지는 할수 있으나 조만간 비약하는 시대에 물거품처럼 밀려나기마련이다. 시대적요구에 부합되지 않는것은 무조건 타파하여야 한다. 그래야 발전이라는 거대한 추동력이 작용할수 있다.

우리 일군들의 모든 사색은 창조적이여야 하며 사고의 라침판은 언제나 진보와 새것에 가닿아있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의도를 뼈에 새기고 사업을 대담하고 창조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실력을 부단히 높이며 고도의 의식으로 창발성을 발휘하는 사람, 오늘의 만리마시대는 이런 열혈혁명가들을 부른다.

본사기자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우시군 가하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독보와 해설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이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또한 당보에 실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보도들과 위대성기사들을 빠짐없이 해설선전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얼마전 들끓는 현장에 나간 리당의 한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령도, 덕망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대성에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헌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최 항 룡

사랑의 화원

무릇 인간세상의 모든 정을 초월한 사랑은 어머니사랑이라 한다. 우리 인민모두가 꿈결에도 찾는 어버이장군님의 품은 혈육의 정을 초월한 어머니품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고아를 품에 안으시고 그가 살아있을 때도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사후에도 친부모의 심정으로 그의 자녀들을 위해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인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당과 인민대중이 끊을수 없는 혈연의 정으로 튼튼히 이어지게 하시였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의 자서전을 앞에 놓으시고 한밤을 꼬박 새우시였다.

평림군의 아득령기슭에서 나서자란 그는 전쟁시기 미제공중비적들이 떨군 세균탄피해로 부모를 졸지에 잃은 고아였다.

그때부터 그는 15살 어린나이에 세 오누이를 거느린 세대주가 되였다. 12살 난 남동생은 불구였고 막내동생은 젖먹이였다. 하지만 그는 부모를 빼앗아간 미제원쑤들을 복수하기 위하여 나이를 불구어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제 몸건사도 잘 못하는 불구자동생에게 어린 동생들을 맡기고 집을 떠나는 그의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

마음을 떠나는 날 그는 젖먹이동생에게 미음을 떠먹이며 《나 돌아올 때까지 죽지 마.》하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였다.

다른 두 동생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쓰던 숟가락을 깨끗이 닦아 하나씩 쥐여주며 아빠엄마가 보고싶으면 이걸 보라고, 동네어른들 말 잘 들어야 한다고 당부하는 그의 두볼로는 뜨거운것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였다.

그가 집을 막상 나서는데 등뒤에서 《형, 빨리 오라.》라는 울음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손으로는 문설주를 잡고 한손으로는 눈물을 닦는 불구자동생이였다. 그의 애처로운 모습이 끝끝내 발목을 잡아 그는 도로 달려가 동생들을 와락 붙안고 한참이나 같이 울었다.

그는 옵까지의 80리길을 내내 눈물을 삼키며 걸었다.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고사로병이 된 그는 고사로를 끌고 철령고개를 넘나들었고 전쟁이 끝나자 제대되여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였다. 장가도 집단에서 보내주었다. 그의 안해도 의지가지할데 없는 고아였다. …

다음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를 불러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산골에서 나서자라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혼자서 고생인들 얼마나 했겠소. 나는 어제밤 동무의 자서전을 보고 밤새껏 잠들지 못하였소.

순간 그는 목이 메여 흐느끼였다.

공연히 아픈 마음을 흔들어놓아 그러는게 아닌니까? 동무도 고아이고 처도 고아고 둘 다 의지가지할데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 사는데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은 없소?

위대한 장군님의 진정이 그의 폐부에 뜨겁게 흘러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뜨거운것이 치미는것을 금치 못하시며 들먹이는 그의 어깨를 그냥 어루쓸어주시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어느날 밤늦게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옷들이 옷걸이에 걸려있는 방으로 그를 데리고가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에게 차례로 입어보라고 하시며 몸소 입혀주시고 앞뒤로 돌려세우시며 옷맵시를 보아주시였다. 맞기도 꼭 맞았고 색갈이며 옷모양도 흠잡을데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옷걸이에서 옷들을 벗겨 하나하나 보자기에 싸서 그에게 안겨주시였다. 그제서야 영문을 알게 된 그는 어버이장군님의 품에 안겨 오열을 터치였다.

이처럼 보살펴주시던 그가 뜻하지 않은 일로 사망하였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사를 제쳐놓고 그가 안치되여있는 곳으로 나오시였다. 사랑하는 전사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며 비감을 금치 못하시는 위대한 장군님.

고아의 집안이여서 친척들은 없고 안해와 어린 세 자식만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그들을 보시는 장군님께서는 미여질듯한 아픔을 금할수 없으시였다.

조의를 표시하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출입문목으로 향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여 다시 돌아보시였다. 고인의 안해가 어린 세 자식을 붙안고 흐느끼고있었다.

그 측은한 모습을 눈물겹게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불쌍하다고, 부모의 사랑이란 모르고 살아온 그가 불쌍하다고, 우리 사랑밖에 모르고 자란 그가 저 어린것들을 남기고 그렇게 가다니라고 갈리신 음성으로 거듭거듭 외우시였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고아에 대한 생각으로 한밤을 밝히시였다. 그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그가 남기고 간 가족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야지 누가 돌보겠는가고 하시면서 세 아이의 장래문제까지 하나하나 의논해주시였다. 그 고아가 바로 당의 기초축성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성장한 최철용동지이다.

사랑이란 말이 생겨 과연 언제, 어느 시대에 이런 열화같은 사랑이 있었던가.

세월의 언덕을 넘어 면면히 흐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이는 백두산대국의 천만리를 휘황찬란하게 펼치는 영원한 사랑의 화원이다.

본사기자 량 순

박봉주총리

황주군의 가물피해실태 료해

박봉주내각총리가 황주군의 가물피해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최근 불리한 일기조건으로 가물현상이 지속되고있는 가운데 황주군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총리는 황주군 석정협동농장, 룡원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가물피해막이전투를 힘차게 벌리고있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고무해주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영양수를 리용한 효과적인 가물피해막이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물원천을 최대로 탐구리용하는 동시에 성, 중앙기관들에서 피해막이에 필요한 물전기재들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애국의 땀방울로 사회주의대지를 적시여 가물피해를 이겨내자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평안남도에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평안남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이 군민협동작전으로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 시, 군 당책임일군들과 도급기관, 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당, 행정책임일군들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알곡생산비중이 크고 피해면적이 많은 10개 시, 군들과 도안의 수백개 농장들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례년에 없는 최악의 가물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이와 함께 도농촌경리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가물과의 전투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 설비들을 긴급보장하며 양수설비들을 수리정비하고 흙땅과 굴포 등을 보수하거나 새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 다그치게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가물과의 투쟁은 당의 사상관철전이고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으며 방송선전차와 포전방송기재들을 전투현장에 전개하고 방송편집물과 격동적인 노래, 시 등을 통한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비상한 각오가 온 도에 차넘치는 속에 지난 25일 하루동안에만도 우물과 보막이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 많은 로력과 3 370여대의 물권기재, 1 000여대의 양수기, 100여대의 강우기가 동원되였다. 하여 1 500여정보의 면적에 물을 주었다.

증산군에서는 가물피해막이전투를 위한 긴급협의회를 열고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 기관, 기업소들이 총동원되도록 하였다. 군의 일군들은 밤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면서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논밭에 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녀성들은 농업전선을 함께 지켜섰다는 립장에서 물주기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25일 하루동안에만도 수만명이 동원되여 수십정보의 논과 밭에 물을 주었다.

증산군의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떨쳐나선 인민군군인들은 석다협동농장 제5작업반과 제7작업반에 있는 석다간선물길 4.5km구간에서 500㎥의 토량을 처리하여 물보장을 원만히 할수 있게 하였으며 금송협동농장에 나간 인민군군인들은 가물피해를 받고있는 강냉이밭에 물주기를 하면서 김매기도 동시에 내밀었다.

대동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줄기를 돌리고 땅속의 물을 다 퍼올려서라도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끝까지 관철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산악같이 일떠섰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떨쳐나선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력화협동농장과 마산협동농장사이의 3km구간의 물길에서 450㎥의 토량을 처리하여 금정협동농장과 서계협동농장의 논밭에 물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숙천군에서는 일군들이 가물피해가 심한 포전들에 달려나가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우물, 굴포, 흙땅을 적극 리용하며 한방울의 물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포전들에 대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고있다.

김홍농장에서는 군민협동작전으로 가물피해가 심한 제5작업반과 제7작업반의 강냉이밭에 물주기를 진행하고있으며 검산농장에서도 제8작업반의 천수답에 뜨락또르로 물을 운반하여 대책을 세우고있다.

순천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섰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어려가지 운반수단들과 관수설비들을 가물피해막이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협동농장원들은 가물피해를 어떻게 막는가에 따라 올해농사작황이 달려있다고 하면서 포기마다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물을 주고있다.

개천시, 평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시, 군일군들과 근로자들, 협동농장원들도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기어이 승전포성을 높이 울릴 불타는 일념안고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떨쳐나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협동벌에 달려나온 지원자들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가물피해막이전투를 힘있게 벌림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양에서 강명군으로 달려나온 지원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함께 지켜섰다는 자각안고 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농촌을 적극 지원하여 농사를 잘 짓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물과의 전투는 당중앙위원회이고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이다. 이것을 명심한 국가계획위원회, 농업성, 중앙은행, 전력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가물과의 전투가 시작되자 만사를 제치고 즉시 전투장으로 달려나와 놀땀는 포전에 전투좌지를 정하였다.

농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필요하다면 한몸이 그대로 양수기가 되고 물주머니가 되여서라도 포전들에 생명수를 부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가물피해막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원동기가 달린 이동식양수기 8대와 배낭식분무기 100대를 비롯한 많은 영농물자들을 농장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를 끝장을 볼 때까지 진행할 결의밑에 포전들에 달려나갔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분무기를 메고 농장원들과 함께 한포기한포기에 물을 주고있다.

중앙은행에서 통이 큰 목표밑에 농촌지원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이곳 일군들과 정무원들도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성실한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성의를 다하여 필요한 설비들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동식양수기 50대, 배낭식분무기 1 000여대, 뜨락또르다이야를 비롯한 많은 설비와 영농물자들을 마련하여 현지에 보내주었다.

전력공업성에서도 지원전투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성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렬에서 내달리는 인민군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만사를 제치고 가물피해막이전투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동식양수기 4대, 수천m의 전기선을 전투장에 보내주었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도 가물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싣고 포전으로 달려나와 농업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어깨겯고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들만이 아니다. 전투장으로 달려나온 물차운전사들은 당의 부름에 오직 헌신과 실천으로 대답할 결사관철의 정신을 뼈에 새기고 전화의 그날의 수송전사들처럼 살며 투쟁하고있다. 이들은 짬시간마다 물차정비를 짠지게 하여 련일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운전사들은 운반도중 뜻하지 않은 난관이 조성되자 래일 당장 비가 온다고 하여도 밤 12시까지는 맡겨진 운반계획을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각오밑에 자체의 힘으로 수리정비를 하고 야간작업까지 해가며 물을 실어날랐다. 시연유상사의 운전사도 전투명령을 받은 전사는 절대로 쓰러질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불편한 몸이지만 운전대를 놓지 않았다. 자동차가 들어가기 힘든 포전들에 자체의 힘으로 도로를 개척하면서 하루평균 15회이상 물을 운반하고있다.

지원자들의 헌신의 모습은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됨에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지원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지금 가물이 든 포전마다 생명수가 흘러들고있다.

물원천을 모조리 동원

벽성군 룡정협동농장 제7, 8작업반의 천수답들에 생명수가 철철 흘러들고있다.

하늘이 준것이 아니다.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땅속을 들여다볼데 대한 우리 당의 뜻을 받들고 자기 고장의 물원천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던 과정에 누구의 눈에도 띄우지 않고 덧없이 땅속으로 흐르던 물원천을 찾아낸것이다.

가물과의 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농장원모두가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던 날이였다. 제일 애로는 물원천이 부족한것이였다.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 땅속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당의 뜻을 되새겨보는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생각은 우리 고장의 땅속에 물원천이 더 없을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였다. 그러던중 제7작업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물이 차있을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로천체굴을 하던 곳이여서 물이 있을것은 분명한 리치였다. 가보니 실지 이곳에 물이 있었다.

그러나 포전에 물이 흘러들도록 수십m의 물길을 내는데는 큼이 간단치 않았다. 처리해야 할 토량만 해도 수백㎥에 달하였다. 물원천이 있다면 땅속끝까지도 파내고 강줄기도 통채로 돌려야 한다는 사상적각오로 달라붙으니 그 아름찬 토량도 단 8시간만에 처리하고 포전에 생명수를 끌어들일수 있게 되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혁명적기질, 한몸이 그대로 포전을 적시는 물주머니가 되고 물길이 되여서라도 당정책을 결사관철해야 한다는 정신력이 지난 시기같으면 감히 엄두도 못낼 일감을 해제끼고 가물극복의 돌파구를 열어놓은것이다.

이로 하여 제7, 8작업반에서는 이 물을 리용하여 논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한방울의 물도 포전을 적시는 생명수로!

이들의 경험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자로 하여 난관을 뚫고나갈 방도를 모색한다면 가물을 이겨낼 물원천은 어디서나 찾아낼수 있고 아무리 어렵다 해도 생명수 넘쳐흐르는 물길을 얼마든지 열어놓을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말해주고있다.

인민군대정치일군들의 모범따라

온천군당위원회 일군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가물피해막이전투에 떨쳐나선 온천군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전투사기가 대단하고 실적도 높다. 인민군대정치일군들의 모범을 따라 화선에 나가 이신작칙하며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은 혁신적이다.

나를 따라 앞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우리를 찾으라!

이것이 가물과의 전투를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군당위원회일군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군당책임일군들이 실천적모범을 보이고있다.

지난 6월 20일 가물과의 투쟁에 떨쳐나설데 대한 당의 방침을 일군들에게 알려준 즉시 군당위원장 서정철동무가 달려나간 곳은 가물피해가 심하고 조건이 불리한 서화협동농장 제5작업반이였다.

농장원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물자를 가지고 작업반에 도착한 군당책임일군은 당의 전투적호소에 결사관철로 화답하자고,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본때를 다시금 떨치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바께쯔를 들고 말라드는 강냉이포기들에 물을 주기 시작하였다. 군당책임일군의 뒤를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따라섰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농장, 작업반들에 일군들을 파견하는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군당위원회가 직접 가물피해가 심한 읍협동농장 제3작업반 강냉이밭을 맡아 가물과의 전투를 벌려나갔다. 크고작은 물통들과 소형양수기를 화물차에 싣고 포전에 달려나간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양수기와 운반기재들을 만가동시키는 한편 이른새벽부터 아침까지, 저녁부터 깊은 밤까지 팔손에 물바께쯔를 들고 말라드는 강냉이포기들을 살려내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군당위원회일군들속에서는 가물과의 전투에서 걸린 문제들을 즉시에 풀어주는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통월협동농장 제2작업반에서 물을 실어나르던 뜨락또르가 뜻밖의 고장으로 멈춰섰을 때 부속품들을 즉시 해결해주어 만가동을 보장하게 하였을뿐아니라 성의있는 후방사업으로 작업반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준 조직부 부원, 송천협동농장 제4작업반에 달려나간 첫날부터 대중의 앞장에서 매일 수십리의 포전길을 달리는 한편 양수기의 만가동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자체로 보장한 일군…

당일군들의 이신작칙과 불같은 헌신은 대중을 가물과의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가장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되고있다.

전투후의 새 전투

군의 가물피해막이전투는 매일 밤이 퍼 깊어서야 끝나군한다.

그러나 전투가 끝난 후에도 일군들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는 때가 없다. 전투후의 새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있는것이다.

군당위원회는 모든 력량과 수단을 가물피해막이전투에 총동원하는것과 함께 대중의 마음과의 사업을 심화시키는것을 전투승리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고리로 보았다.

온 하루를 전투장에서 이신작칙하며 대중을 혁신에로 이끄느라 몸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군당위원회일군들을 비롯한 군안의 당일군들은 단위별, 개인별 전투실적을 놓고 대상의 특성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남모르는 밤길을 많이 걷고있다.

군당위원회 부장 장정학동무는 며칠전 서화협동농장 제2작업반 3분조전투장에서 대중과 어울리며 일하는 과정에 한 농장원의 생활상고충을 알게 되여 퇴근길에 그의 집을 찾았다. 가정살림에서 애로되는 문제도 풀어주며 뜻깊은 올해 주타격전방에 승전고를 높이 울리려는 당의 뜻을 받들어 가물피해막이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고 고무해주는 그의 진정은 농장원과 가족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가물피해막이전투가 벌어지는 군안의 어느 단위에서나 전투의 담당자인 대중의 마음과의 사업을 앞세워나가는 당일군들을 볼수 있다.

인민군대정치일군들처럼 이신작칙과 정으로 대중의 심장속에 불을 지펴 혁신에로 이끄는 군당위원회일군들의 박력있는 작전과 지휘는 가물피해막이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772호 주체106(2017)년 6월 20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3대혁명붉은기

만경대닭공장
평양전기기구공장
동창혁명사적관
룡등탄광 운수직장
은률광산 콘베아직장
안변군 사평협동농장 제5작업반
김책수산사업소 랭동작업반
단천제련소 자동화직장
운흥군 대덕협동농장 제2작업반
수도건설위원회 자재상사 세멘트공급과
중앙계급교양관
중앙경공업제품견본관
인민대학습당 교육처

3대혁명붉은기

순안구역 동산협동농장 농산 제1작업반
평양기계종합대학 자원개발기계공학부
안주식료가공공장
북창탄부오리공장
정원목장 상송오리직장
숙천군 약전농장 제14작업반
룡등탄광 벨트껑
구성금산광산
태천청년토끼종축장
배천군 오봉협동농장 제11작업반
대한영예군인콤튜터인쇄잉크공장
류성룡당수산사업소
인민봉사총국 대천농장 농산 제2작업반
황주과수농장 금석 제6작업반
사리원과수농장 제12작업반
위원군 음협동농장 제1작업반
포하수산협동조합
고원군체신소
수동탄광 공무직장
영광군 산창협동농장 제3작업반
오일광산 작업탐사대
천리마구역 대보협동농장 농산제5작업반
평양전구상점
신의주기관차대 운전대대
해주객화차대 객차중대
대안역
고무산철길대 무수철길소대
정원철길대 혼용철길소대
식료일용공업성 피복연구소
건설건재공업성 신간포장용기 및 피복준비소
판광려객자동차사업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773호 주체106(2017)년 6월 20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모범적인 다음의 단위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한다.

보란봉구역 진흥초급중학교
원산외국어학원
혜산시 신흥초급중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선경불장식연구소창립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선경불장식연구소창립 10돐기념보고회가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관계부문, 연구소일군들,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선경불장식연구소 연구사,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기남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선경불장식연구소는 당을 따라 선군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온 우리 인민들에게 희한한 불야경을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사랑과 로고에 의하여 태여나고 자라난 현대적인 불장식연구기지이라고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주체96(2007)년 6월 27일 다각적인 조명 및 불장식설계와 시공, 과학연구, 기술개발, 기술봉사능력을 가진 불장식연구집단을 꾸려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장식의 조형화, 예술화를 우리 식으로 할데 대한 고귀한 지침을 밝혀주시고 걸음걸음 성공과 비약에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애국유산인 선경불장식연구소를 중시하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해나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불장식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인민대학습당과 천리마동상에 대한 불장식으로부터 첫걸음을 뗀 연구소가 지난 10년간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믿음직한 불장식기술집단으로 강화발전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연구소의 연구사,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마식령스키장,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등 기념비적창조물들에 대한 불장식을 총동원하여 애써 지어놓은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는것과 함께 탈곡한 농작물들을 잘 보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있다.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가물과의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면서 밀보리수확을 적기에 결속한 기세드높이 가을이 끝난 포전들에서 뒤그루작물심기를 다그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집단적혁신으로 밀보리가을 적기에 결속

황해북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이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속에서도 밀보리가을을 짧은 기간에 와락 끝냈다.

일군들은 들끓는 포전들에 파지를 정하고 화선식정치사업과 이신작칙의 사업기풍으로 대중을 혁신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한편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갔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안고 씨뿌리기와 비배관리를 알심있게 해온 송림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밀보리가을을 제일먼저 결속하였다. 서송, 당산남새전문협동농장, 인포협동농장들에서는 일정대로 뒤그루모내기와 논밭김매기를 다그치면서 밀보리가을을 동시에 내밀수 있게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매일 실적을 지난해보다 1.2배로 높이였다.

봉산, 은파군에서 전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농장사이, 작업반사이, 분조사이 사회주의경쟁을 드세게 벌려 수확면적을 넓혀나갔다. 사리원시, 황주, 서흥군의 농업근로자들이 적기에 밀보리가을을 끝낼 목표밑에 력량을 집중하여 단 며칠동안에 말끔히 해제끼였다.

다른 군들에서도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애써 지어놓은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는것과 함께 탈곡한 농작물들을 잘 보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있다.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가물과의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면서 밀보리수확을 적기에 결속한 기세드높이 가을이 끝난 포전들에서 뒤그루작물심기를 다그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샘줄기 영원토록 흐르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강서약수공장을 돌아보고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해 바치신 헌신의 자욱

우리 인민들을 기쁨으로 설레이게 하는 소식이 련일 전해지고있다.

새해 정초부터 개방폭포, 이불폭포, 김치폭포에 대한 소식으로 격정에 젖어있는 온 나라가 오늘은 강서약수에 대한 화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있다.

강서약수,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몸소 공장의 리전도 잡아주시고 어려차례나 찾으시였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눈에 삼삼히 어려오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해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겨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갈마든다.

오늘은 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서약수공장을 찾으시여 우리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샘줄기가 영원토록 흐르게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서약수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약수를 많이 생산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철두철미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강서약수공장에서는 약수를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이 약수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념원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몸소 다녀가신 강서약수공장을 찾았다.

유명한 청산벌의 푸르른 전야가 한눈에 안겨들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수림처럼 우거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공장은 마치 휴양소를 방불케 하여 들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여주었다.

우리와 만난 공장지배인 림선화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올 때 우리는 인민을 그처럼 사랑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다시 우러르는것만 같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먼저 혁명사적표식비를 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3돐을 맞으며 혁명사적표식비를 다시 건립하였는데 잘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강서약수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공장,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덕을 노래하는 공장이라고 하시며 수령님들의 로고를 더듬어보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이 공장의 멋쟁이건물들과 번듯한 구내도로, 현대적인 설비들과 나무한그루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체취가 뜨겁게 스며있었다.

주체62(1973)년 3월 19일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공장의 리전을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제품의 이름도 달아주시고 약수병을 잘 만들고 정제도 잘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다음해 3월에 또다시 공장을 찾으시여 병마개와 상표가 중요한것만큼 잘 만들데 대하여 이르시고 약수를 강서지구에서 고열로동을 하는 로동자들에게도 공급하고 렬차대대에도 공급하도록 하시였다. 뿐만아니라 공장주변에 바람도 막고 경치도 좋게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태여난 강서약수공장을 인민의 사랑을 받는 보배공장으로 꾸려주시려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시련을 겪던 때에도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하여 인민들에게 약수를 공급하도록 온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약수의 샘줄기가 뜻밖에 끊어졌을 때에는 강서약수를 어떻게 하나 다시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강력한 연구집단과 탐사력량을 보내주시였다. 원수장주변에서 약수가 나오는 곳을 다시 찾았으며 그 약수가 종전의 약수보다 용출량도 많고 탄산가스함유량도 더 많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화가 목이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다시 솟구쳐오르는 약수를 보시려고 공장에 찾아오시였다.

수수한 야전솜옷차림으로 차거운 약수병을 손에 드시고 너무도 만족하시여 해빛같이 환히 웃으시던 우리 장군님,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는 그 모습을 우러르며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모두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불편하신 몸으로 수지병약수생산전들 2층에서 한걸음 또 한걸음 계단을 내리시던 우리 장군님의 승엄한 영상을 세월이 간들 어찌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오셨던 7년전 그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장을 돌아보는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공장에서는 더 많은 약수를 생산공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샘줄기가 우리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하여야 합니다. …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로동계급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거둔 자랑찬 성과들을 들어주시고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5대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도 힘있게 밀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우리병약수생산공정과 통약수생산공정, 수지병약수생산공정들마다에서 제품이 흐름선을 타고 줄지어 흘러나오는것이 정말 놀만 하다고 하시면서 주입 및 마개밀봉기, 자동세척주입라인기 등 설비들을 우리식으로 현대화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생산현장의 바닥에 에폭시수지를 바른것을 보시고 보기 좋다고 하시였고 생산현장과 복도사이에 유리간막이를 하였는데 잘하였다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사랑의 일화들을 남기시였다.

통약수에 밀봉비닐을 씌우고있는 로동자의 작업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시던 우리 원수님께서는 그가 임은 위생복을 손수 만져도 보시고 위생복의 색갈도 가늠해보시며 음료공장의 특성에 맞게 위생복을 산뜻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도안을 만들어 올려보내라고, 잘 만들어주자고 크나큰 온정을 안겨주시였다.

공장에 많은 일군들이 다녀갔지만 누구도 관심하지 못한 문제였다. 그런데 돌보셔야 할 천만국사를 안고계시는 우리 원수님께서 로동자들에게 입힐 위생복에 대해서까지 그토록 세심히 관심하신것이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약수터에도 들려주시였다.

강서약수터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인민사랑의 발자취를 뜨겁게 더듬어보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그곳의 음천장에서 친히 약수맛을 보아주시였다.

원수장에서는 생산에 리용하지 못하는 약수도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다 리용하여야 한다고, 약수로 목욕을 하면 건강에 좋을것이라고 하시며 흘려보내는 한줄기 약수마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지병약수생산공정에 들리시여서도 약수병을 드시고 약수맛을 보아주시였다.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크나큰 로고를 바쳐가신 우리 원수님,

그 모습에서 공장일군들은 우리 인민들이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시려는 그이의 사랑을 절감하며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솟구치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샘줄기에서 흘러져나오는 약수는 시원한 물줄기여도 어버이 그 사랑은 가슴을 뜨거움에 젖게 하였던것이다.

지금 강서약수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비상히 앙양된 열의로 만리마선구자대회장을 향하여 힘찬 보폭을 내짚고 있다.

멀지 않아 공장에서는 탄산단물을 비롯한 갖가지 새 제품이 흘러나오게 되며 약수목욕탕이 훌륭히 건설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고 한다.

얼마나 좋은가. 이제 우리 인민이 마음껏 누리게 될 약수덕, 이에 대하여 생각만 해보아도 마음이 흐뭇하다.

이렇게 우리 인민의 기쁨은 나날이 더욱 커만 간다. 오직 제힘으로, 자기의 자원으로 행복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하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또 얼마나 드높은것인가.

우리 조국의 문명은 나날이 개화만발하고있다.

경공업을 우리 혁명의 중요한 전선으로 내세우시고 진두지휘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속에 우리의 경공업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눈부신 발전의 주로에 확고히 들어서고있다.

진정 강서약수공장은 당의 사랑이 후덥게 느껴져 떠나고싶지 않은 공장, 대대손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을 길이 노래하는 영광의 일터이다.

영원히 흐르라, 인민사랑의 샘줄기여,

위대한 어버이사랑을 뜨겁게 전하며.

글 본사기자 최 유 일
사진 본사기자 한 광 명

※ 뜻깊은 현지지도후에 꽃펴난 이야기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자기의 령도자를 진심으로 높이 받들고 따르는 인민은 없습니다.》

공장의 경사, 마을의 경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강서약수공장을 다녀가셨답니다.》

누군가가 헐레벌떡 달려와 알려주는 이 소식을 전해듣는 순간 강서구역 덕흥리에 사는 조옥녀녀성은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공무작업반장인 남편이 혹시 경애하는 그이를 만나뵈왔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지만 생산1작업반의 평범한 기대공인 딸 은별이는 어찌되었겠는지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았다.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무렵 동구밖까지 달려나간 그는 얼굴들이 환하여 돌아오는 남편과 딸을 만났다. 안해의 두손을 마주잡은 리정섭동무의 환희에 찬 웨침!

《지척에서 뵈왔소. 나도 은별이도 온 공장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그이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소.》

격정의 눈물을 쏟는 세 식구한테로 덕흥협동농장 농장원들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모여왔다. 너도나도 축하의 인사를 하며 말했다. 오늘의 경사는 강서약수공장의 종업원들이 사는 덕흥리와 청산리, 강서구역의 모든 마을들의 경사라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시는것은 누구나 간절히 바라며 또 제일 처럼 기뻐하는 경사중의 경사인것이다.

양보할수 없는 일

로동정량원 리철민동무와 종업원식당 취사원 오영옥동무는 부부간이다.

지난 6월 3일부《로동신문》에 실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에서 자기들을 찾아보는 이들부부의 얼굴에 행복의 미소가 넘쳐났다.

이날 리철민동무는 그《로동신문》을 가지고 안해와 함께 부모님들의 집을 찾았다.

부부가 한 공장에서 일하니 이런 영광과 복을 받아안았다면서 신문속의 기념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리철민동무는 생각이 많았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안해에게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후 공장종업원들속에서는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흠모하며 따르는 순결한 충정이 비낀 가지가지의 가슴뜨거운 일화들이 생겨났다.

공장의 경사, 마을의 경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강서약수공장을 다녀가셨답니다.》

누군가가 헐레벌떡 달려와 알려주는 이 소식을 전해듣는 순간 강서구역 덕흥리에 사는 조옥녀녀성은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공무작업반장인 남편이 혹시 경애하는 그이를 만나뵈왔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았지만 생산1작업반의 평범한 기대공인 딸 은별이는 어찌되었겠는지 도저히 짐작이 가지 않았다.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무렵 동구밖까지 달려나간 그는 얼굴들이 환하여 돌아오는 남편과 딸을 만났다. 안해의 두손을 마주잡은 리정섭동무의 환희에 찬 웨침!

《지척에서 뵈왔소. 나도 은별이도 온 공장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그이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소.》

격정의 눈물을 쏟는 세 식구한테로 덕흥협동농장 농장원들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모여왔다. 너도나도 축하의 인사를 하며 말했다. 오늘의 경사는 강서약수공장의 종업원들이 사는 덕흥리와 청산리, 강서구역의 모든 마을들의 경사라고.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시는것은 누구나 간절히 바라며 또 제일 처럼 기뻐하는 경사중의 경사인것이다.

양보할수 없는 일

로동정량원 리철민동무와 종업원식당 취사원 오영옥동무는 부부간이다.

지난 6월 3일부《로동신문》에 실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에서 자기들을 찾아보는 이들부부의 얼굴에 행복의 미소가 넘쳐났다.

이날 리철민동무는 그《로동신문》을 가지고 안해와 함께 부모님들의 집을 찾았다.

부부가 한 공장에서 일하니 이런 영광과 복을 받아안았다면서 신문속의 기념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리철민동무는 생각이 많았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안해에게 지금껏 자기가 한 생각을 터놓고 의견을 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신 기념사진 한상은 우리 집에 모시고 다른 한상은 부모님들의 집에 모시는것이 어떻겠소? 그러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소.》

방안은 한동안 고요하였다.

이윽하여 안해가 단잠에 든 4살 난 딸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하는 말,

《용서하세요. 제발 그것만은…

열광의 대오에 함께 있은 사람들

현지지도를 마치시고 또다시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오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리전 종업원들의 격정의 메아리가 아직도 공장구내를 울리는듯싶던 지난 6월 2일 오후, 질풍같이 달려온 한대의 뻐스가 공장정문을 지나 급정거를 하며 멎어섰다. 운전칸문이 벌컥 열리더니 운전사 리남길동무가 어두운 낯빛으로 내려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공장을 다녀가셨습니까?》

절절한 그의 물음에 누구나 지그시 입술을 깨물뿐.

군사복무를 마친 후 10여년간 공장에서 성실한 땀을 바쳐온 그는 그날 아침도 공장앞에 제기된 긴급과제를 말아안고 운행길을 떠났던것이다.

공장구내바닥우에 뚝뚝 떨어지는 굵은 눈물방울들, 리남길동무는 목메인 소리로 말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정말 뵙고싶었습니다.》

그는 젖은 눈길을 돌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공장종업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몸은 비록 운행길에 있었어도 마음만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맞이한 열광의 대오에 함께 있은 리남길동무를 비롯한 여러 종업원들은 오늘도 우리 원수님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그리움을 안고 혁신의 나날을 이어가고있다.

* *

멀리 있어도, 가까이에 있어도 언제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로만 끝없이 급이쳐흐르는 인민의 정, 이 절대적인 신뢰심은 그 무엇으로도 당할수 없는 우리 조국의 가장 큰 힘인것이다.

본사기자

원 수 장

음 천 장

강서약수의 유래와 약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강서약수는 질이 좋아 우리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고 세계적으로도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년전 강서땅의 한 농부는 논가까이에서 이상한 물줄을 하고있는 학을 발견하였다. 그 학은 다리를 절고있었는데 긴 부리로 땅을 파헤쳐 거기에 고이는 물을 마시기도 하고 상한 다리에 바르기도 하는것이였다. 며칠을 두고 그러던 학이 땅을 힘있게 박차고 날아간 후 농부는 그곳으로 달려가 땅을 파기 시작했다. 50㎝가량 팠는데 세찬 물줄기가 솟구쳐올랐다. 물을 한웅큼 떠마셔보았더니 쇠비린내가 나면서도 그 맛이 아주 상쾌하였다.

그때부터 농부는 그 물을 즐겨마시였는데 먹은것이 없혀 속이 트지하다가도 그 물만 마시면 쑥 내려가군 하였다는것이다.

이것이 강서땅 인민들속에서 수백년세월 전해져내려오는 강서약수의 유래이다.

우리 나라 력사문서《강서군지》에 의하면 강서지역(오늘의 약수리)에서 약수샘이 처음 발견된것은 300여년전이다. 1896년경에는 지금의 강서약수공장이 자리잡은 청산리에서 새로운 약수샘이 발견되였다.

약산성을 띠는 강서약수에는 칼시움, 나트리움, 마그네시움, 철, 규산, 염소, 류산이온들과 탄산가스를 비롯한 사람의 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다.

위액분비정상화와 흡수촉진, 리담, 리뇨, 물질대사촉진, 피만들기 등의 작용을 나타내는 강서약수는 내장질환 특히 위병에 특효이다. 만성위염, 위 및 십이지장궤양, 위수술후유증, 만성소대장염, 동맥경화증, 비만증, 2차성빈혈, 관소기능장애, 뇨로결석증 등의 치료에 적극 쓰이며 외용때에는 일부 허혈성심장병, 동맥경화증, 고혈압병 1~2기, 자률신경실조증, 신경통, 지주운동기의 만성동통성질병, 경한 당뇨병, 비만증, 통풍, 고뇨산혈증, 호흡기의 만성염증성질병 등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물맛과 수질이 뛰여나고 약리작용 또한 높아 인민들이 즐겨찾는 강서약수는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자랑이다.

본사기자

수 필

약수매대앞에서

얼마전 대성구역 룡흥3동의 한 길가에서였다.

《어, 쩡하다! 속이 쑥 열리는것 같군.》

《판매원동무, 한고뿌 더 주시오!》

파란색으로《강서약수》라고 씌쓴 매대앞에서 사람들은 흰거품이 보그르르 이는 약수고뿌를 연방 받아들고있었다. 코마루가 쨍해지는 그 맛이 하도 좋아 길가의 강서약수매대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젊은이, 이 약수를 오래동안 마셨더니 고질병이라던 속탈이 쭉 떨어졌다는 로인…

그 모습들로 하여 매대는 자못 흥성이고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입니다.》

평양제1백화점을 비롯하여 시인의 백화점들에 강서약수매대가 있고 식료상점들에서도 약수를 팔아주는데다가 길을 가다가도 마실수 있는 이런 매대들까지 있으니 우리 생활에는 건강장수의 보약인 강서약수가 항상 흘러넘치고있는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며칠전 강서약수공장을 찾았을 때 공장지배인이 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해방전에는 이 좋은 약수를 우리 강서사람들조차 마음껏 마시지 못했습니다.》

근로하는 인민이 찾은 약수였건만 그것을 독차지한것은 일제놈들과 부자놈들이였다. 놈들은 약수터주변에 가시줄울타리를 치고 사나운 개까지 풀어놓아 보통사람들은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약수 한모금을 마시려다가 개한테 물려 심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니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나라를 잃어 제고장 물마저 마음대로 마실수 없었던 우리 인민이였다.

하지만 오늘은 강서약수터와 멀리 떨어진 수도의 거리거리로《강서약수》차들이 인민을 찾아 줄지어 달리고 시안의 상업망들과 금양망들, 길가의 수많은 강서약수매대들에서는 그 맛이 날로 더 좋아지는 시원한 약수가 사람들을 반겨맞는다.

강서약수매대, 그앞에 서면 항일전의 나날 우리 나라에는 주을, 양덕을 비롯하여 곳곳에 온천이 있고 삼방, 강서를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약수가 나온다고, 이 아름다운 산들과 맑은 물, 수려한 경치들이 모두 인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하여 복무하게 된다면 우리 나라는 얼마나 살기 좋은 락원으로 되겠는가고 절절히 교시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그 매대앞에 서면 어려해전 불편하신 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강서약수공장의 생산공정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헌신의 모습도 어려온다.

지난 6월초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으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을 또다시 뵈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발자취가 스민 강서약수공장을 찾으시여 원수장에서 솟구치는 많은 량의 약수가 단 한방울도 허실되지 않고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면서 각 도들에 강서약수판매 및 공급기지를 꾸릴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인민의 영원한 제부로 끝없이 흘러넘치는 강서약수!

자본주의만화카에서라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 어떤 요란한 수식사도, 화려한 광고판도 없는 길가의 소박한 약수매대앞에서 우리는 분명 들었다.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만이 아닌 우리 당의 뜨거운 목소리를, 땅속깊이 흐르는 한줄기 약수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재부는 철두철미 근로하는 인민의것이라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의 선언을.

본사기자 허 명 숙

그리움의 대하는 기적을 낳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그날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과 원수장, 과학기술보급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태와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겠다는 지배인 림선화동무의 결의를 들으시고 적극 지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고 기쁨을 드리는것을 최고의 소원, 최상의 영예로 여기고 바로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마음을 바쳐온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였으니 그 감격과 환희를 무엇으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은 꿈같은 그날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나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더 많은 약수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며 약수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높이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돌아보시며 남기신 유훈이였다.

초급당위원장 리광범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갔다.

온 공장이 떨쳐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불굴의 투쟁을 벌리였다.

일군들은 더 많은 약수를 생산하여 수도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통약수생산공정을 새로 꾸릴 대담한 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초행길이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중앙의 과학연구단위와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통약수생산공정을 흐름식으로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그 나날 지새운 밤은 얼마였던가.

현행생산을 다그치면서 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열풍이 온 공장을 휩쓸었다.

자동세척주입라인기와 같은 현대적인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한다는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였다. 거기에 조예가 있는 기술자나 기능공도 없었다.

하지만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설계로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하는 어렵고도 힘겨운 길에 발벗고 나섰다.

참으로 흘러가는 분분초초가 아까왔다.

지배인과 초급당위원장은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동시에 유리차단벽설치공사, 주변정리공사를 립체전의 방법으로 해내기로 작전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매기있게 해나갔다.

어느날 출장갔던 지배인 림선화동무가 지녁어스름이 깃들무렵 공장에 들어섰을 때였다.

주변정리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러 공장은 부글부글 끓고있었다.

지배인은 그길로 종업원들속에 뛰여들어 일감을 잡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공사장에 그리움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졌다.

7년전,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에 찾아오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였다.

그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덩어리가 되여 방대한 주변정리공사를 완전히 끝냈다.

상반년계획을 두달이나 앞당겨 수행한 생산1작업반원들도, 선행공정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사랑의 샘줄기가 줄기차게 흐를수 있게 헌신한 생산2작업반원들도, 차고건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킨 종업원들과 1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한 박영일동무를 비롯한 기술자들도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며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시 찾아주신 사랑의 약수가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가닿도록 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이 벌어지던 그 나날에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수없이 꽃펴났다.

지배인 림선화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녀성로동자들과 함숙생들의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데 남달리 관심을 썼다. 함숙생들의 생일은 물론 녀성로동자들의 남편들의 생일까지도 잊지 않고 마음쓰는 일군들, 그 뜨거운 인정미에 눈굽을 적시며 종업원들은 시간이 가는줄도, 힘든줄도 몰랐다.

이 나날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많은 설비들을 국산화하여 우리 식의 현대화를 실현하였으며 유리차단벽을 설치하여 무진화, 무균화를 훌륭히 실현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그리움의 대하는 마침내 기적을 낳았다.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위대한 사랑과 당의 뜻을 현실로 꽃피워가는 뜨거운 애국충정의 마음들에 떠받들려 사랑의 샘줄기, 강서약수는 영원히 마를줄 모르고 끝없이 솟아오를것이다.

특파기자 주 창 선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지금 조선반도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험악하다.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전략자산들을 계속 투입하여 북침불장난소동들을 련일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극한점에로 몰아가고있다. 여기에 괴뢰호전광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해나서면서 북남관계는 파국상태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통하여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밝히였다. 성명에서는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조성된 정세로 보나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로 보나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는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 땅에서 핵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것이 우리의 의지이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자면 우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겨냥하여 해마다 벌려놓는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무조건 중지하여야 한다.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민족의 안전을 해치는 주되는 요인이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에서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북남관계가 파국적위기에 빠지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격화되여 핵전쟁발발국면으로 치달군 하였다.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까지 위협하는것으로 하여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에 의하여 민족의 운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당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당하는것을 더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재난밖에 가져올것이 없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은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될수 없다. 그것은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며 세계제패전략의 산물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그 무슨 《북핵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그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핵전략자산들을 총동원하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있지만 그럴수록 전쟁광신자, 평화파괴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만 더욱 드러내고 내외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을 자아낼뿐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친미보수패당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이후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민심의 기대와 관심은 급격히 높아가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자극하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에 질겁한 미국은 합동군사연습을 더 자주, 더 크게 벌릴것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저들의 침략적리익만을 절대시하면서 조선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깃드는것을 조금도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행정부가 그 무슨 《힘에 의한 평화를 원한다.》느니, 《군사적선택도 불사》하겠다느니 하고 울러메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다놓고 각종 명목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념원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도전이다.

미국의 핵위협공갈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에 한사코 매달리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미국의 불법무도한 망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승냥이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으며 자위적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침략자들의 피묻은 마지막이발까지 무자비하게 부서버려야 한다는것을 더욱 뼈속깊이 새기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로 차례질것은 시체와 죽음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우리의 인내심을 떠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은 조선반도정화의 가장 공고하고 현실적인 담보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겉고들것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망동을 지지시키기 위한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북남관계문제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박근혜패당과 같은 처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다.

지금은 백마디 말보다 북남사이의 군사적충돌위험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여야 할 시기이다.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은 말로는 임기내에 조선반도평화의 《획기적전기》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남사이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응해나오지 못할 리유가 없다.

남조선당국이 말로만 북남관계개선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에 역행하는것이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자들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축소하지 않을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댄것은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지금과 같이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의 길을 제대로 열어나갈수 있겠는가. 북과 남의 첨예한 군사적대결상태는 동족사이에 불신과 오해를 증대시키고 종당에는 민족적참화까지 빚어낼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평화를 위해 그 무엇을 하고싶다면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워서라도 조선반도를 타고앉아 세계제패전략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책동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스스로 화를 청하는 쌀개빠진짓을 그만두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급히 취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한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력사적인 10.4선언에는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도가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선언들을 리행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것이다.

지금처럼 서해열점지역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고수놀음을 벌려놓고 군사분계선일대를 비롯한 우리의 코앞에서 무력충돌을 야기시키는 군사적도발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고 평화를 보장할수 없다.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과의 군사적대결에 한사코 매달리면서 긴장격화를 조장하는자들은 민심의 지지를 얻을수 없으며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손잡고 나아갈것이지만 외세와 공조하여 민족의 머리우에 핵재난을 불아오려는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다.

당당한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의 확고한 지위에 올라선 오늘의 새로운 국면에 맞게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자주통일의 기치높이 내외호전세력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며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

박 철 준

종국적멸망을 가져올 《대북선제공격》카드

최근 국도의 궁지에 빠진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위기탈출을 위해 모험적인 《대북선제공격》카드를 만지작거리고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였다.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6일 미국외교협회 에방행동센터 상급연구사 젤코를 비롯한 미국정계, 학계의 인물들이 미국잡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 등에서 트럼프가 날로 불리하게 번져지는 《로씨야내통의혹》과 걷잡을수 없는 지지률하락에 란핵위기까지 겹쳐들고있는 조건에서 북의 핵시설들과 장거리미싸일기지들에 대한 선제공격명령을 내릴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경우 북은 남조선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공격을 가할것이며 결국 수백, 수천만명의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전쟁을 부르게 될것이라고 그들은 평하였다.

그들은 위기모면을 위해 빠나마침공과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던 부쉬1세 등과 같이 의심이 많고 세상을 혹백의 이분법으로 보는 경향이 완벽한 트럼프로서는 그러한 모험적인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언하였다.

미국에서 트럼프에 대한 정신이상설이 나돌고있는 때에 이러한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수리아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감행한 후 기고만장해진 트럼프행정부는 최근 군사적모험의 무대를 조선반도에로 옮길 기도를 드러내면서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사상 처음으로 2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동시에 조선동해에 전개하고 괌도에 배치된 모든 《B-1B》핵전략폭격기들을 투입하여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훈련을 광란적으로 감행한데 이어 또다시 핵잠수함 《샤이엔》호를 부산항에 들이밀었으며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공격을 가상한 미싸일요격시험까지 벌려놓았다.

남조선에 거주하고있는 미군가족을 포함한 미국민간인들을 일본으로 소개시키는 훈련도 감행하고있다.

정세분석가들은 트럼프행정부가 란핵국면으로 인한 집권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른바 《강한 면모》를 내외에 과시하여 정치적반대파들에게 《단호한 정권》, 《행동하는 정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하고있다고 보고있다.

트럼프가 위기탈출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대북선제공격》카드를 주무르고있는것은 참으로 불행한 선택이 아닐수 없다.

우리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가 완전성공한 후 미군부에서는 《북조선과의 군사적대결은 상상할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것이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는 북조선을 무릎꿇게 할수 없다.》고 자인하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있다.

미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군사적해법으로 간다면 믿기 힘든 규모의 비극이 될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 64명은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이러한 나라에 대한 무모한 선제공격을 포기할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트럼프에게 보내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트럼프의 매우 거칠고 극단적인 성격과 미국내에서 나돌고있는 그의 정신이상설, 최근 미국의 군사적움직임 등을 놓고볼 때 《대북선제공격》카드가 선택될 위험성이 크지만 그것은 결코 묘책이 못된다는것이 여론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트럼프행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듣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미국이 제 정신을 못 차리고 허둥거릴수록 우리의 핵공격능력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남조선당국도 트럼프에게 추종하여 북침전쟁불장난소동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상상하기 끔찍한 대참화를 불러오게 된다는것을 단단히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대중적투쟁 전개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24일 서울에서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의 주최로 미국의 《싸드》배치책동을 규탄하는 범국민평화행동이 진행되였다.

경상북도 성주군과 김천시를 비롯하여 남조선 각지에서 모여온 수천명의 군중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먼저 진행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현 《정부》가 초불항쟁의 결과로 세워진 《정부》답게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미국에 똑바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싸드》배치는 법적절차와 사회적토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불법, 위법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싸드》의 환경영향평가문제를 두고 오히려 제편에서 망발을 해대는 미국대통령이 《싸드》를 가져가라고 그들은 항의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군중들은 비가 오는 속에서도 《한반도 싸드 철회하라! 평화체제 구축하자! 싸드 가고 평화 오라!》 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집회가 끝난 후 여러 거리들을 행진해간 군중은 미국대사관을 포위하는 인간띠잇기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보다 앞서 《싸드》배치저지전국행동은 21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주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인간띠잇기시위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

단체는 《정부》가 국민의 평화와 안전, 기본권리를 우선시하고 미국의 부당한 《싸드》배치강요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친미굴종이 빚어낸 희대의 정치만화

예속동맹, 굴종동맹으로서의 남조선미국 《동맹》의 진면모를 폭로해주는 또 하나의 눈뜨고 보지 못할 광대극이 펼쳐졌다. 그 계기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정인의 미국행각발언이였다.

미국을 행각하던 그는 어느 한 모임에서 《북의 핵, 미싸일활동중단》이 이루어지면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규모와 조선반도에 전개된 미국전략무기들을 《축소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노발대발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싸드》부지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환경영향평가로 불쾌감을 로골적으로 표시하던 미국은 문정인의 발언과 관련하여 남강도적본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트럼프행정부것들은 저저마다 나서서 《오래전에 실패한 〈해빙정책〉의 먼지를 털어내는듯 하다.》느니, 《좋지 않은 생각》이라느니, 남조선과의 《동맹》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이 문정인의 견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곧 있게 될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불협화음을 낼수 있다.》고 협박까지 가하였다. 한편 미국은 외교협회 회장을 서울에 파견한다, 재무장관이 전화를 건다 하고 부산을 비우면서 남조선집권자의 정확한 립장을 타진하고 반공화국제재공조에 남조선당국을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려고 음으로양으로 획책하였다.

미군부호전계층의 압력은 더한층 로골적이였다. 미군부는 남조선당국이 들으라는 식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핵전략폭격기들의 출격회수를 대폭 늘이겠다고 발표하였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2사단장이라는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괴뢰군과의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현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다.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고아댔다. 실제로 미군부호전계층의 발언이후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미국과 괴뢰들의 련합공중전훈련, 련합해상훈련 등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문제는 문정인의 발언을 놓고 성이 복같이 오른 미국이 련일 신경질을 부리고 괴대를 뜯구는데 대한 남조선내부의 반응이다.

미국이 문정인의 발언과 관련하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곧 남조선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

당황망조한 괴뢰보수패거리들은 미국과의 《〈동맹〉에 균렬을 일으키는 일》이라느니, 《미국이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있다.》느니 하면서 무슨 큰 일이나 난것처럼 분주탕을 피웠다. 친미사대의식이 골수에까지 박 들어찬 《자유한국당》의 한 역적은 문정인의 발언에 대해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심각한 발언》이라고 겁고들다 못해 나중에는 그를 당장 사퇴시키라고 고아댔다.

괴뢰보수언론들도 덩달아 《트럼프대통령이 격노》했다느니,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안요소가 쉽게 가셔지지 않을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여론을 내돌리면서 사태를 더욱 부추겼다. 그리고 《새 〈정부〉의 외교안보진이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고 헐뜯으면서 현 당국을 몰아댔다.

괴뢰보수패거리들뿐이 아니다. 나중에는 진보의 탈을 쓴 《국민의 당》떨거지들까지 나서서 《색깔론》공세를 들이대면서 문정인에게 특별보좌관직과 교수직가운데서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하였다.

집권자의 미국행각을 앞두고 문정인의 발언과 관련한 론난이 확대되자 바빠맞은 남조선당국은 파문을 가라앉히는데 급급하였다. 문정인의 발언은 《그의 개인적인 견해일뿐》이라느니, 《훈련축소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느니 하면서 구체적인것은 트럼프와의 회담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변명해나섰는가 하면 미국상전과 보수패거리들의 눈치를 보며 당사자에게 《엄중경고》를 하는 조치까지 취하였다.

그야말로 숭미굴종이 만연된 남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희대의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미국 《동맹》이라는것이 동맹의 허울을 뒤집어쓴 지배와 예속, 굴종의 올가미이라는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관계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주종관계이다.

괴뢰들이 지금껏 미국과의 《동맹》에 대해 그 무슨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요란하게 광고해왔지만 그것이 가져다준것이 과연 무엇인가. 남조선인민들에게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하고 북남관계를 혜여날수 없는 파국상태에 빠뜨렸으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온것밖에 더 있는가. 남조선을 주변대국들의 핵대결장으로 전락시키고 인민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싸드》배치놀음도 바로 《동맹》의 간판밑에 벌어지고있지 않는가.

온갖 재앙의 화근인 예속동맹, 굴종동맹의 사슬을 깨버리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스스로 온몸에 두텁, 세겹 얽어매면서 상전의 비위를 상하지 않게 하려고 지랄발광하는 천하의 쌀개빠진 역적들이 바로 남조선의 친미보수패당이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이때에 언제까지나 미국의 노예살이를 지속하려는 반역아들의 추태야말로 웃지도 울지도 못할 희비극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사태를 통하여 자신들이 왜 아직도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과 재난을 강요당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심각히 돌이켜보고있다.

남조선에서 사대매국과 외세의존에 환장한 친미보수패당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런 꼴불견은 계속될것이다.

본사기자 은 정 철

철천지원쑤 미제를 단호히 징벌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자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군중대회 시, 군들에서 진행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군중대회가 시, 군들에서 진행되였다.

지방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하였다.

대회장들은 조선반도에서 가장 야만적인 전쟁을 도발하고 년대와 세기를 이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적대시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를 단호히 징벌하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 의지를 안고 모여온 각계층 군중들로 차고넘치였다.

순천, 덕천, 개천시, 룡덕, 숙천, 재령, 은천군군중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미제가 1950년 6월 25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전대미문의 인민대학살과 무차별적인 파괴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미제살인귀들의 더러운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귀축같은 만행이 감행되고 수많은 건물들과 농경지, 산림이 페허로 되였다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수호의 성전에 떨쳐나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였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용납 못할 추태의 후과로 이 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수치스러운 파멸을 맞을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연설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로동계급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를 억세게 틀어쥐고 전력, 석탄 등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전선은 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의 가장 첨예한 전초선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농사에서 또다시 풍작훈을 불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야만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문천시, 박천, 동림, 룡천, 철원, 명천, 어랑, 부령군에서 진행된 군중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에서 교훈을 찾음 대신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까밝혔다.

그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지닌 견결한 선군혁명투사, 참다운 애국자가 되여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적들의 비렬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다그치고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더 높이 울림으로써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비렬한 반공화국제재책동을 불거품으로 만들어버릴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청년들이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처럼 선군혁명의 제일선참호와 대전실전투장들에 용약 달려나가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원쑤와의 최후결전에 떨쳐나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낼 복수의 함성이 희천시, 랑림, 룡림, 덕성, 부전, 온파, 신평군군중대회장들에서 힘있게 울려나왔다.

연설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원쑤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군자리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우리 식의 최첨단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당의 병진로선을 결사관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워 원쑤들이 우리 조국땅에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인민군대와 함께 달려나가 침략자들을 최후멸망의 무덤속에 매장해버릴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삼지연, 대홍단, 보천, 녕변, 고원, 봉천군군중대회장들에서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반미대결전을 끝장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불타는 결의들이 표명되였다.

연설자들은 미제가 그 무슨 《최대의 압박》이니, 《핵선제타격》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위협공갈하고있지만 절대로 두렵지 않으며 추호도 흔들림없다고 하면서 미제와 원쑤들의 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용용한 기상앞에 기절초풍한자들의 최후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이 시각도 미제는 조선반도주변에 방대한 핵전략무기들을 끌어다놓고 남조선괴뢰호전광들과 야합하여 무모한 불장난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고 하면서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년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진행된 군중시위들에서 참가자들은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이 감히 선불질을 한다면 원쑤격멸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침략자무리들을 씨도 없이 쓸어버리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굳은 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힘차게 웨치며 거리들을 행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 조 무 관 단

류경안과종합병원, 평양가방공장 참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27일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참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류경안과종합병원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인민의 병원, 후대들에게 물려줄 손색이 없는 다기능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무관단성원들은 외래병동, 안정상점 등을 돌아보았다.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테가 쿠바공화국대사관 무관은 감상록에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서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수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고 썼다.

이어 평양가방공장을 찾은 손님들은 현대적인 가방생산기지의 여러 공정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인민사랑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뜨거운 애국의 마음 안고 인민군대원호사업을 잘하고있다.
—허천군 상농로동자구 박연옥동무의 가정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교장 김영용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27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21세기의 나치즘—《미국제일주의》를 배격한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념원은 오늘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현 미행정부의 무지막지한 강권과 전횡으로 하여 세계도처에서 파괴와 살륙이 성행하고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는 날로 증대되고있다.

세계가 겪는 이 대혼란은 트럼프행정부가 떠들고있는 《미국제일주의》의 직접적산물이다.

인류는 아메리카제국의 횡포무도한 《미국제일주의》교리를 단호히 배격한다.

1

《미국제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력대 미행정부들이 추구해온 패권주의의 련속판이며 그 확대판이다.

미국의 리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짓밟아도 무방하다는 극단적인 침략사상, 배타주의를 선동하는 반동적사상조류이다.

트럼프는 지난 선거경쟁기간 《미국은 다른 나라를 훈시할 자격이 없다.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기 전에 제 집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고 하면서 《미국제일주의》가 패권주의와는 인연이 없는것처럼 광고해댔다.

《무역, 과세, 외교 등 모든것이 국민에게 리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는 주장을 늘어놓아 마치 자국내 인민들을 위한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불간섭적이며 평화공존적인 정치리념인듯이 표방하였다.

국민들의 전쟁반대, 생활개선요구를 대변하는듯 한 공약들을 람발하여 권력을 차지하자 《도덕이 아닌 힘의 과시》,《최강의 미군재건》,《힘에 의한 평화》와 같은 화약내 풍기는 독설들을 퍼발함으로써 그 본색을 드러냈다.

미국은 침략과 간섭, 략탈을 본성으로 하는 제국주의국가로서 그의 대외전략은 패권주의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침략과 략탈로 세워지고 비대해진 미국은 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우두머리로 등장한 기회를 리용하여 세계제패실현을 대외전략목표로 내걸었다.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1945년 12월 19일부 《교서》에서 《우리들은 1차대전후 윌슨대통령이 우리에게 무어하기를 원하였던 지도적지위를 이제야 인수하게 되였다. 》고 하면서 미국은 기꺼이 《세계를 지도》할 사명을 맡아나서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후 미국에서 민주, 공화 량당을 오가는 권력쟁탈과정에 《트루맨주의》,《아이젠하워주의》,《니슨주의》 등 갖가지 정치리념이 출현하였지만 본질은 하나같이 세계제패였다.

트럼프가 지난 1월 미중앙정보국 직원들앞에서 이라크전쟁을 정당화하며 《우리는 원유를 장악하고있어야 한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모름지기 당신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생길수도 있다. 》고 뇌까린바와 같이 현 미행정부의 대외정책방향도 달리는 될수 없다.

트럼프당선후 미국에서는 군수독점체들의 주식값이 뛰여오르고 록키드 마틴회사는 그의 취임후 며칠만에 행정부와 스펠스 전투기들의 가격문제를 놓고 쓱력공론을 벌리였다.

미국에서 군수독점체들의 가동은 곧 전쟁경제의 가동이며 그것은 반드시 전쟁발발로 이어지게 되여있다.

지난 1월 아시아의 한 언론은 《트럼프는 미국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복무하여야 하고 〈미국이라는 큰 회사의 총사장〉으로서 자기를 지원하는 재단들과 전체 〈주주〉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며 〈감독리사회〉의 규제하에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바쁜들에 얽매여있다. 》고 까밝혔다.

이것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제일주의》 역시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을 합리화하고 그에 철저히 복무하는 전쟁교리임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제일주의》는 그 악랄성과 잔인성, 배타적성격에 있어서 지난 세기의 파시즘을 릉가하는 미국판 나치즘이다.

미국의 패권주의가 출현하기 전에 세계를 대전란속에 몰아넣은것은 도이췰란드식 패권주의인 히틀러의 나치즘이였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말기에 반파쑈세력에 합세한것은 트루맨이 《전쟁에서 도이췰란드가 이길것 같으면 쏘련을, 쏘련이 승리할것처럼 보이면 도이췰란드를 지원하면 된다. 》고 떠벌인것처럼 파시즘을 격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적규모에서 새로운 미국판 파시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제일주의》는 히틀러의 세계정복구상과 마찬가지로 군사적방법에 의한 세계제패를 공언하여 국제사회와 자국민들의 규탄을 자아내고있다.

히틀러의 독재정치를 본따 국민들을 벗과 적으로 가르고 탄압을 정당화하고있는 트럼프의 《두국민전략》은 미국정계와 사회계, 언론계, 정보계 등 각계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어 그 제창자인 트럼프도 탄핵의 도마우에 오르게 하고있다.

착취자들에게 특혜를 베풀던 파쑈두목처럼 독점자본을 위한 막대한 감세조치를 취함으로써 19조 5,000억US$를 넘는 국가채무로 헐떡이는 미국의 재정형편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파시즘의 인종주의정책과 다를바 없는 반이주민정책은 이주민출신 인재들로 수익을 올리고있는 대기업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다민족, 다인종국가인 미국의 력사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세인의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이 어리석고도 모순적인 정책은 뉴욕, 워싱톤, 오레곤, 미네소타, 마사츄세프 등 많은 주들의 반발을 일으켰으며 시애틀, 하와이련방재판소들은 그 법적집행을 거부해나섰다.

얼마전 도이췰란드TV방송에 출연한 한 풍자프로사회자는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다 도이췰란드의 〈제일주의〉가 통기였다. 》고 강조하고 히틀러의 흉상과 랭전시기 베를린장벽건설장면이 나올 때 트럼프의 《목소리》로 《우리도 매우 위대한 장벽을 쌓았으며 로씨아인들이 그 돈을 내게 하였다. 》고 흘내내여 트럼프교리의 본질을 야유조소하였다.

지금 세계가 트럼프의 파시즘돌격체가 짚은 언행들을 두고 그의 심상치 않은 도이췰란드형통에 주목을 돌리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트럼프가 《미국은 모든 나라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세계를 대변할 의도가 없다. 》,《전쟁과 분쟁이 아니라 화목과 안정을 바란다. 》고 줴쳐대며 자기의 교리에 비단보자기를 씌워도 그 파쑈적정체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2

《미국제일주의》가 대두한이래 세계는 어느 하루도 정온한 날이 없었다.

조선반도와 지역정세가 갈수록 첨예화되고있다.

조선핵문제해결을 외교안보정책의 1차적사항으로,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대조선정책으로 확정한 트럼프행정부는 우리에 대한 전대미문의 핵위협공갈과 경제제재책동에 광분하고있다.

30여만의 침략무력과 각종 핵전략자산들을 총투입한 사상최대규모의 전쟁연습에 련이어 강행되는 핵타격훈련, 폭탄테로와 생화학물질에 의한 특대형국가테로음모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우리를 질식시키기 위한 경제봉쇄소동에 세계의 모든 나라와 지역을 끌어들이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트럼프가 직접 여러 나라들을 돌아치면서 대조선제재압박에 합류하라고 호통치고 모든 나라들이 우리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금을 낮출것을 강요하는 《외교적징벌방안》이라는것도 휘둘러대고있다.

《중국이 북조선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할것》이라고 정치적공갈과 경제제재채찍을 마구 휘두르면서 대조선제재책동에 걸숙이 끓어들이고있다.

한방울의 연유는 물론 의료설비와 의약품들의 반입마저 가로막는 트럼프행정부의 망동은 히틀러의 페넌그라드봉쇄를 릉가하는 반인륜적, 비인도주의적만행이다.

이 모든것은 주권국가들을 패권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전인류를 전쟁제물로 씨먹으려는 극히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미국이 우리의 핵미싸일《위협》을 떠들며 저들의 책동을 정당화하지만 실지로는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패권전략을 분쇄낼수 있는 가장 위협한 실제로 떠오르는데 집중한자의 단말마적발악이다.

잠재적적수들인 중국과 로씨야를 제압하고 지역과 세계를 거머쥐려는 책동은 트럼프시기에 와서 극도에 달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강행 등 극동에로의 전략자산이동전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륙간탄도미싸일의 빈번한 시험발사와 그 요격시험으로 지역대국들의 안전리익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 시작부터 중국남해의 국제수역에서 중국의 지배권을 분쇄낼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항공기와 함선을 파견하는 등 군사적압박을 강화하고있다.

인디아를 비롯한 주변국들을 사촉하여 중국과의 군비경쟁, 대결에로 부추김으로써 지역을 각국의 전략적대결장으로 만들어놓았다.

대중국관세적용, 환률조작국지정 등 각종 도박식협포로 경제적리익을 따내는것도 끄리지 않았다.

트럼프행정부의 대중국압박공세와 관련하여 세계의 전문가들과 미국언론들속에서는 앞으로 5~10년안에 중미사이에 전면전쟁이 터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집권전 트럼프가 로씨야와의 관계개선을 떠벌인것은 기만극이였다.

미국은 대로씨아포위환형성을 위해 지난 1월 랭전후 최대규모의 기갑려단을 뽈스까에 추가전개하였으며 그후 에스또니아, 로므니아, 도이췰란드, 벌가리아를 비롯한 유럽도처에 침략무력을 계속 들이밀었다.

로미가 이미 체결한 핵군축조약을 악랄하게 헐뜯고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반환해야 한다. 》고 로씨야를 자극한것도 모자라 이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를 날로 강화하고있다.

트럼프패는 중동지역에도 파괴와 살륙, 불안정의 악순환만을 불아왔다.

중동지대전략실현의 일환인 수리아국가전복을 위해 《화학무기사용》과 같은 각종 모략설을 꾸며내고 정부군을 목표로 야만적인 군사공격을 가함으로써 평토완정을 위한 이 나라 인민의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미국의 패권전략에 대항하고있는 이란의 방위력강화조치들을 한사코 걸고들며 대이란제재소동에 광분하는가 하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유대목고주의를 비호해나섬으로써 중동평화문제해결을 가로막고있다.

베네수엘라의 불순세력들을 폭력적인 반정부시위에로 내몰고 반꾸바제한, 제재조치들을 발표하는 등 반미국가들을 말살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으로 라틴아메리카지역정세도 복잡해졌다.

온 세상을 회생시켜서라도 저들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트럼프식사고방식은 미국의 동맹자, 하수인들까지 막다른 곤경에 몰아넣고있다.

세계도처에 수천개의 군사기지와 시설들을 설치하고 지배책동에 광분하고도 오히려 《미군을 고갈시키면서 세계평화를 지켜왔다. 》고 떠들며 《군사비를 증액하여 미국에 바칠것》을 강박하고있다.

지난 5월말에 열린 나토수뇌자회의에서도 트럼프는 성원국들이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할것을 강요함으로써 동맹자들의 고혈마저 짜내는 흡혈귀적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국익우선주의》를 떠벌이며 외국제품들에 엄청난 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동맹자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들, 쌍무적투자협정들의 재검토를 운운하여 서방경제전반에도 혼란을 조성하고있다.

최근에는 대로씨아제재확대의 명목밑에 유럽기업들에도 제재의 칼부림을 해댐으로써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자기의 노복인 일본과 남조선에 《안보무임승차론》을 내리먹이고 남조선당국에 《싸드》운용비지불압력을 가하는 등 하수인들을 련일 달구어대고있다.

트럼프패는 지금껏 미국의 패권주의도구로 리용되여온 유엔에 대한 분담금지불까지 거부하고 그 부담을 다른 성원국들에 돌씌우려 하고있다.

국제법과 협정들도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속에 지난 6월 1일에는 인류생존의 담보로 되는 대기권과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사회공동의 결과물인 빠리협정을 란폭하게 짓밟아버렸다.

지구환경파괴의 왕초인 미국이 오히려 오만무례하게 협정탈퇴를 선언한것은 전세계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자아내고있다.

저들의 리익을 위해 탄산가스의 무제한한 방출도 무방하다는 미국의 행위를 두고 국제사회가 《히틀러의 독가스만행을 릉가할 행위》,《푸른 행성전체를 독가스실화하여 전인류를 멸살하려는 범죄》로 락인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트럼프행정부가 국제적기부금과 미군유지비문제를 놓고 《세계를 위해 기여한 돈》이니, 《미국산업을 희생시켜 세계를 부유하게 해준데 대한 보상》이니 뭐니 떠들지만 사실상 그것은 전세계를 략탈해온 남강도제국의 본색을 가리우고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마해보려는 잔꾀에 불과하다.

제반 사실들은 지구상에 공포와 불안정단을 야기시키고있는 《미국제일주의》야말로 불간섭이 아닌 철저한 간섭주의, 평화공존이 아닌 위험천만한 전쟁제일주의임을 실증해주고있다.

현대문명의 인간사회를 약육강식의 법칙, 장글의 법칙이 횡행하는 야수의 세계로 되돌리려는 《미국제일주의》는 오만과 독단의 극치를 이룬다.

바로 여기에 력대 패권주의와 다른 교활성과 로악성이 있다.

모든것이 미국을 위해 존재하고 그 먹이감이 되여야 한다는 양키식패권론리는 시대착오적인 망상, 궤변으로서 더이상 자주시대와 인간의 건전한 사유앞에 통할수 없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간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광적인 사상과 세력은 마땅히 이 행성에서 축출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주장이며 인류의 요구이다.

우리 공화국이 자주의 기치, 정의의 보검을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나아가는것은 인류에게 해만 끼쳐온 악의 제국 미국의 저주로운 력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단합하여 미국의 패권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정의와 단합된 힘앞에 미국식패권주의는 종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천만번 정당한 선택

얼마전 미국잡지 《내슈널 인터레스트》가 미국이 1945년부터 1992년까지 1 000여차례의 핵시험을 감행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국은 네바다주에서 699차례, 비키니, 에니웨토크 등 태평양상에서 333차례의 핵시험을 강행하였는데 1954년에는 비키니섬에서 그 위력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의 1 000배가 넘는 수소탄실용시험을 하였다. 그때 폭발지점으로부터 반경 255km안에 있던 287명이 방사능피해를 입었고 주변해역에 있던 700여척의 어선들이 《죽음의 재》를 뒤집어썼다. 60km 떨어진 뭇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던 일본어선 《다이고후꾸류마루》의 선원들은 방사능피해로 전원이 사망하였다. 1962년에는 네바다주에서 《리틀 쎌러》라는 암호를 달고 남조선강점 미군이 비반충로로도 발사할수 있는 전술핵탄두시험을 진행하였다. 그후에도 미국은 헤이은 핵시험으로 숱한 사람들에게 방사능피해를 입혔다.

이 글이 시사해주는바는 아주 크다.

그것은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유일무이하게 인류의 머리우에 핵폭탄을 들씌우고도 모자라 전세계를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발악하는 미국이야말로 이 세상에 돌도 없는 야만국가, 허피고서에 세워야 할 특등핵범죄국이라는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가지고있는 미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억제력을 강화하는것뿐이라는것이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핵무기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의 기둥으로 삼아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 핵무기를 만들어낸 미국은 쩍하면 그것을 휘두르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핵위협공갈을 가하여왔다. 지어 우리 나라는 물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다른 나라들을 목표로 핵무기사용계획까지 세워놓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 하였다.

그에 대처하여 우리 주변의 일부 나라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능력강화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핵무기를 전쟁을 막고 국가의 안전과 리익을 보장할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으로 보았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덜어놓고말해서 우리 공화국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핵억제력강화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 나라가 력사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받고있는 핵위협은 주변나라들과는 대비도 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지난 1950년대부터 우리 나라에 핵위협공갈을 가해온 미국은 해마다 방대한 핵무력을 동원하여 핵불장난소동을 벌리면서 우리 공화국을 심히 자극하여왔다. 21세기에 들어와 그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매없이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고 선제타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미국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으로 핵전쟁위협이 조성되였다. 이런 엄혹한 사태에서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해 핵을 보유하고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나라의 핵억제력강화조치는 정당하다. 우리 공화국이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하였기에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가 보장되고있다. 만일 우리 나라에 미국의 망동을 제압할수 있는 힘이 없었다면 이미전에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났을것이며 그것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세계에로 확대되였을것이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도 우리 공화국이 대륙의 관문을 굳건히 지켜서있기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이 담보되고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최고리익을 지키는데 필요한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계속 확대강화해나갈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에서 미해잠수함까지 동원된 해상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고 미군부의 고위인물들이 군사적방안을 포함한 대조선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줴쳐대면서 단말마적인 광기를 부리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그렇다.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적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유린당하고있는 험악한 실태는 바로 우리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은 신통히도 힘이 약한 나라, 핵이 없는 나라들만 골라가며 때리면서 허세를 부리고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하는것이 있다. 그것은 남의것이 아무리 위력한것이라고 하여도 제손에 쥐여져있는 막대기보다 못하다는것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의 핵무기는 철두철미 방위를 위한것이며 핵전쟁 그자체를 막기 위한것이다.

때문에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할수 있는 물리적힘, 전쟁억제력을 더욱 줄기차게 강화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선택, 결단은 천만번 정당하다.

리 학 남

변함없는 국가전복정책의 발로

미국이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의 정권을 전복할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최근 미국무장관은 국내기자회견에서 현 행정부가 정립하고있는 새로운 대이란정책의 골자는 정권교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핵악관주인자리에 누가 들어앉든 미국의 지배주의적이며 침략적인 대외정책의 본질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전이 벌어질 때에 트럼프가 내세운 선거공약들중의 하나가 다른 나라들에 정권교체를 강박하는 정책을 관철내겠다는것이였다. 하지만 그것이 한갖 기만에 불과하다는것을 미국무장관이 스스로 드러내놓았다.

지금 미국이 이란, 수리아에서 벌리는 국가전복책동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얼마전 미국회 상원은 이란의 탄도미싸일개발을 걸고 추가제재를 가할데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8일에는 미국주도의 국제련합 전투기들이 수리아의 북부지역에서 《이슬람교국가》에 대한 특격임무를 수행하고있던 이 나라 정부군 전투기를 격추하였다. 미국이 수리아정부군 전투기가 《이슬람교국가》와 싸운다고 하는 반정부세력을 폭격하였기때문에 격추하였다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수리아정부군의 반테로활동을 압박하고 반정부세력들과 테로분자들이 활개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 그들을 정권전복책동에 써먹자는데 있다.

미국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겨냥한 로골적인 대결정책, 변함없는 국가전복을 꾀하고있다.

미국의 국가전복책동은 흔히 자위적국방력을 약화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제재압박을 가하고 《반테로》와 같은 구실로 해당 나라의 령토, 령공, 령해에 삐젓이 들어가 군사작전을 벌리면서 그 나라의 국방력을 극도로 쇠약하게 만든 다음 국가전복목적을 달성한다.

이라크, 리비아사태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1991년의 페르샤만전쟁이후 미국은 이라크에 10여년동안이나 제재를 가하고 빈번히 군사적타격을 들이대면서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화시켰다. 지어 회유기만의 방법으로 이라크군의 무장장비에서 주력을 이루고있던 미싸일 등을 이 나라 사람들자신이 파괴하도록 하고는 전쟁을 도발하고 단숨에 먹어치웠다.

미국은 자기 나라의 판아메리칸항공회사소속 려객기가 스코틀랜드의 로커비상공에서 폭발한 사건의 책임을 리비아에 뒤집어씌우고 이 나라에 강도높은 제재를 오랜 기간 들이댔다. 리비아가 로커비사건문제에서 크게 양보하고 수십년간 추진해오던 핵계획을 포기하였지만 미국은 《민주주의수호》의 간판밑에 나토성원국들을 부추겨 이 나라를 타격하고 정권을 뒤집어엎었다.

결국 그 나라들에서 평화는 완전히 깨여져나가고 인민들은 내란의 참화속에 빠져들었다. 미제국주의의 아수적본성,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피를 즐기는 승냥이와 같은 날강도 미제에게 사소하게나마 환상을 가지거나 양보를 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강한 전쟁억제력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이 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낼수 없고 인민들의 행복과 번영도 이룩할수 없다. 이것은 지나온 력사가 새겨주는 피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에 초강도제재압박을 들이대고 핵항공모함타격단과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끊임없이 들이밀면서 핵전쟁소동을 피우고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압살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침략적야망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만약 우리 나라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강박하고 유혹한다고 하여 자위적핵보유의 길을 버리고 그들에게 양보하여 타협하고 굴종하였더라면 오늘 이 땅에서는 이라크와 리비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나라들이 겪는것보다 더한 재난과 불행의 비극이 초래되였을것이다. 우리 나라의 핵억제력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수 없고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국보이다.

미국이 초강도제재압박과 회유기만으로 우리 공화국의 핵억제력을 빼앗아내겠다는것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는 어리석은 개꿈이다.

리 현 도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

꾸바에서 개막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이 25일 꾸바에서 개막되였다.

개막식장정면에는 우리 나라 기발과 꾸바기발이 드리워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개막식장에 모셔져있었다.

개막식에는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꾸바 제인민간의 친선협회, 꾸바—조선친선가금원종장의 일군들, 군중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제1부위원장 후안 호쎄 레온 베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50년 6월 25일은 미제가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킨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한목숨바쳐 싸웠다.

1953년 7월 27일 미제는 저들의 침략력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조선정전협정에 수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조선인민은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

꾸바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최고령도자 이신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조선인민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체의 힘으로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것이다.

이어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영화 《조선전쟁의 장본인》을 감상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련대위원회 결성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련대위원회 결성식이 15일에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영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련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영국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데모트 하드슨이, 부위원장으로 협회성원인 데이비드 무노스 데 카스트로가 선출되였다.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과 광란적인 핵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다.

또한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동족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는 완전파국상태에 처하였으며 조선인민의 통일애국위업은 엄중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하였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지배를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며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바라는 영국의 진보조직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련대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이어 결성식에서는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전쟁책동의 중지와 남조선주둔 미군철수,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며 북과 남, 해외 전체 조선민족의 조국통일투쟁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성원하고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정당, 사회단체들과의 련대련합을 강화할데 대한 위원회 활동계획이 발표되였다.

미국의 제재에 대응할 립장 표명

로씨야대통령공보관이 21일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책동에 대응할 립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 제재를 계속 확대하고있는데 대해 비난하면서 미국의 제재명단확대에 따른 로씨야의 대응은 호상성의 원칙에 기초할것이며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미 토의중에 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현 실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의 제재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하여 제기되고있는 문제를 조정하려는 정치적의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로씨야외무성 부상 쎄르게이 랍꼬브도 론평을 발표하여 미국의 새로운 제재책동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자기 나라가 실질적인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며 적대적행동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테로반대투쟁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가 23일 꾸르디스탄주에서 테로소탕작전을 벌려 3명의 테로분자들을 처단하고 1명을 체포하였으며 많은 무기와 탄약을 압수하였다.

같은 날 나이제리아의 쏘코토주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들에서 폭탄테로공격을 단행하려고 계획하고있던 2명의 테로두목이 붙잡혔다.

핵계획을 추진시키려는 립장 강조

남아프리카대통령 자코브 제뚤레이홀레키사 주마가 22일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핵계획을 계속 추진시킬 정부의 립장을 강조하였다.

그는 핵에네르기는 가장 깨끗한 에네르기자원으로서 나라의 동력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믿음직한 자원이라고 말하였다.

핵계획을 실천하는것은 에네르기안전을 담보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될것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공업지구 준공

에티오피아의 아와사시에 건설되는 공업지구 1단계 공사가 완공되여 20일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공업지구에서는 천 및 지은옷생산을 전문으로 하게 된다.

정부는 일자리를 더 많이 조성하고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킬 목적밑에 전국도처에 10개의 공업지구를 내올것을 계획하고있다.

농촌전기화 계획

나이제리아가 농촌의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는 전국적인 농촌주민지역들의 전력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기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재생에네르기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먼저 2만세대의 농촌살림집들에 태양열을 리용한 전력공급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20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경제 장성

스리랑카에서 올해 1.4분기에 경제가 3.8% 장성하였다.

최근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관광업 발전

만마에서 올해에 들어와 4월까지 받아들인 관광객수가 12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더 많은것이라 한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에 약 350만명의 관광객을 받아들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세계인구 76억명

세계인구가 올해현재 76억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2억명 더 늘어난것이라 한다. 21일 유엔은 세계인구가 2030년에는 86억명으로, 2050년에는 98억명으로 늘어날것으로 예견되고있다고 밝혔다.

조류독감Ⅲ해

대만에서 최근 조류독감이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대남시와 병동현에 있는 가금목장들에서 H5N2형조류독감비루스가 발견되여 약 3만 6 400마리의 가금이 처분되였다.

산불Ⅲ해

미국의 유타주에서 최근 산불로 44㎢의 산림이 불타버렸으며 많은 살림집들이 파손되여 700여명이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수백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71101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말소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